고민을 지우다
믿음을 채우다

교육가족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지울 수 있도록
신뢰받는 금융·복지 서비스로 믿음을 채울 수 있도록
The-K한국교직원공제회가 혁신과 전문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다짐합니다.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호텔앤리조트 The·K제주호텔 The·K저축은행 The·K교직원나라 The·K소피아그린 The·K예다함상조

ccm
공정거래위원회 | 한국소비자원

The·K

MONTHLY MAGAZINE

「신년사」
진심을 담은 서비스로
행복한 삶의 동반자,
신뢰 받는 공제회가 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김상곤 이사장**

「인생 이모작」
우리 마음의 고향
'동요'를 지킵니다
**동요 지킴이
이홍재 회원**

「오늘의 학교」
교육을 바꾸고
아이를 성장시키는
공간의 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

2022 **01**
vol.53

생각 나누기	**역사 속 숨은 영웅**	독립운동가이자, 여성 인권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 차미리사 선생
배움 더하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공간 혁신, 네모난 교실에서 더 큰 꿈을 꾸게 하다
행복 곱하기	**방방곡곡 숨은 명소**	동해의 매력, 일출 명소 삼척
언제나 더케이	**The-K Focus**	2022년, 공제회 새.롭.게 달라지는 것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JANUARY. 2022 I vol. 53

04 **신년사**
진심을 담은 서비스로 행복한 삶의 동반자,
신뢰 받는 공제회가 되겠습니다

06 **여는 글**
새해, 새로운 행복의 문 앞에 서서

생각 나누기

삶의 깨우침을 주는 멘토,
추억과 공감을 나누는 회원들의 이야기

08 **이달의 도움 회원**

10 **The-K 예술가**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12 **일상 속의 The-K**
공제회원 22인의 '임인년' 삼행시 버킷리스트

16 **에세이**
내 어린 시절 고향마을의 사계

18 **좋은 사람 좋은 생각**
진정한 나로 다시 살기_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한성열 명예교수

22 **역사 속 숨은 영웅**
독립운동가이자, 여성 인권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 차미리사 선생

26 **우리 어렸을 적에**
즐거웠던 놀이의 추억

- **발행일** 2022년 1월 1일
-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홈페이지** www.ktcu.or.kr
- **발행인** 김상곤
- **기획** 홍보마케팅부 미디어소통팀
  박병철, 이정우, 김경희, 김종환, 황수현, 오수민
- **편집** 수석기자 이은정 / 객원기자 이성미, 정라희 / 교열 박혜경
-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윤정 / 디자이너 이진희
- **사진** 포토그래퍼 이용기
-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제작**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배움 더하기

변화하는 교육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 배워보는
교육 이야기 & 세대별 맞춤 콘텐츠

28 **오늘의 학교**
교육을 바꾸고 아이를 성장시키는 공간의 힘
_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

32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공간 혁신, 네모난 교실에서 더 큰 꿈을 꾸게 하다
이제는 학교를 '삶의 터전'으로

36 **미래 잡(job)자**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마법사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38 **꿈 너머 꿈**
과학의 숲으로, 지혜의 봄으로
_ 교육부 학교정책과 이승택 교육연구사

42 **고민 상담소**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부모 생활

44 **인생 이모작**
우리 마음의 고향, 동요를 지킵니다
_ 동요 지킴이 이홍재 회원

*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행복 곱하기

힐링을 전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정보

48 **방방곡곡 숨은 명소**
동해의 매력, 일출 명소 삼척

54 **키워드로 읽는 시사**
나와 지구를 위한 새로운 게임 체인저
신념이 소비가 되는 '비거노믹스'

56 **똑똑! 트렌드 경제**
키워드로 보는 2022년 경제 전망

58 **건강한 집밥**
한 살 더 먹은 기념으로 새해 첫날 먹는 특별식
개성 있는 고명으로 특색을 살린 지역별 떡국 요리법

62 **DIY 리사이클링**
의류 폐기물의 불편한 진실
오래 입고 고쳐 입고 나눠 입는 슬로 패션 실천하기
_ 의류를 재활용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언제나 더케이

회원들의 일상과 함께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최신 정보와 주요 소식 & 이벤트

66 **The-K Focus 1**
2021년 한국교직원공제회 제111회 대의원회 개최
"50년 신뢰와 경험으로 2022년 회원 중심 경영을 준비합니다"

68 **The-K Focus 2**
미리 보는 The-K 행복서비스 연간 시즌별 모음집
2022년, 일상의 모든 순간이 더 행복해지는 마법

70 **The-K Focus 3**
2022년, 공제회 새. 롭. 게 달라지는 것

72 **The-K Focus 4**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며"
2021년 The-K 브랜드 캠페인 이벤트 우수작을 소개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잇는 마음 한 줄, 세상을 읽다

74 **The-K News**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78 **회원 의견**

81 **1월호 초성 퀴즈**

82 **온라인에서 만나는 「The-K 매거진」 이벤트**

83 **즉석 당첨 이벤트**

웹진 안드로이드앱 아이폰앱

The-K Magazine을 스마트폰에서 보는 법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 등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한국교직원공제회 • 회원콜센터 1577-3400 • 보험콜센터 1577-3993

진심을 담은 서비스로 행복한 삶의 동반자, 신뢰 받는 공제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교육 가족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의 일상은 긴장과 어수선함의 연속입니다.

복합적인 불확실성 앞에서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하나된 마음으로 교육 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공제회의 성장은 지난해에도 지속됐습니다. 회원은 87만명, 자산은 52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전당기순이익은 1조원대, 준비금적립률은 110%를 초과하는 등 사상 최대의 경영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원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복지제도 운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지난 7월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주관하는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수준인 A등급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 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셨기에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호실적을 거두고,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는 지금, 세계와 한국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를 타개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전례 없는 재정 부양책, 그리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나리오 등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로 시야를 돌리면,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 선거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구조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올해가 경제 및 사회정책 대전환의 원년이자, 국가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기(危機)에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라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어려운 순간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속 성장해 온 교직원공제회의 저력이 올해에도 발현될 것이라 믿습니다.

변곡의 기로에서 시대 조류를 통찰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직원공제회는 올해에도 더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회원 중심의 '금융·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고령화의 가속화, 지속적인 저금리에 대비해 기존의 상품 라인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공제회가 회원의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회원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목돈급여와 퇴직생활급여의 가입 상한 구좌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회원들이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행사를 기획하고 콘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온라인 금융·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 구축과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회원의 행복은 공제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 중 하나입니다. CCM(소비자중심경영) 제6차 인증을 앞둔 올해, 공제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체계에 따라 관련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위한 '내실있는 자산운용'입니다.

자산운용은 수익성, 안정성, 분산투자, 유동성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산배분과 안정적인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및 성과평가 등 자산운용체계의 선진화를 지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우수 해외 운용사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블라인드 펀드 약정 등을 통해 해외 공동투자 기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우량 코어 자산을 발굴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출자회사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재무 건전화는 올 한 해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춘 '창조적 조직 혁신'입니다.

변화가 일상인 시대입니다. 과거의 방식과 기준에 갇혀 있으면 오늘의 변화에 휩쓸려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산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구조와 경쟁력을 갖추고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혁신에 매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전사 관점의 신규 디지털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하여 선제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제도 전반을 고도화해 조직의 성과 및 역량 강화, 그리고 임직원 변화관리의 성공적인 수행을 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통과 공감으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즐겁게 성취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에 더욱 힘쓸 것입니다.

한 조각이라도 빠지면 퍼즐이 완성되지 않듯이 임직원 모두가 한 조각씩 성공의 이유를 만들어 공제회의 미래라는 큰 퍼즐을 완성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골드러시 기간에 금을 캐려던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곡괭이, 삽, 청바지 등을 팔았던 사람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 공제회의 도전과 상상력에는 어떠한 한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의 문이 어디에서 열릴 것인지 민감하게 대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임인년(壬寅年)은 진취적이고 용맹한 기운이 가득한 검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지개를 켜는 호랑이처럼 교직원공제회는 2022년에도 회원님들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김 상곤

새해, 새로운 행복의 문 앞에 서서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인 헬렌 켈러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시청각 장애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의 꿈을 향해 열린 문을 새로 발견해 낸
그의 긍정적인 삶을 배워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닫힌 문들을 마주합니다.
오랜 팬데믹으로 지친 마음, 불안정한 주변의 상황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시간을 보내느라
정작 활짝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따뜻하게 돌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면
행복의 문은 우리 곁에 이미 활짝 열려 있을지 모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가족과 친구, 동료, 무엇보다 자신에게
행복의 문을 찾아 나설 작은 여유를 허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The-K 매거진」 1월호에서는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긍정의 힘'을 강조한 한성열 교수의 밝은 에너지를 전하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여성 인권을 바로 세우고자 열망했던 차미리사 선생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새해를 맞아 교육 현장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학교와 공간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서는 공간의 혁신이 가져올 우리 아이들의 가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올해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2022년 핵심 경제 트렌드, 동해의 매력을 모두 품은 일출 여행지 '삼척',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맛을 낼 수 있는 떡국 레시피 등 새해, 첫 달에 놓쳐서는 안 될 정보들을 가득 담았습니다.
'DIY 리사이클링'에서는 패스트 패션이 불러온 의류 폐기물의 불편한 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활용 아이디어들을 교육 가족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새해 첫 호인만큼 회원님들을 위한 공제회의 주요 소식들도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미리 보는 The-K 행복서비스 연간 시즌별 모음집을 통해 2022년 시즌별로 계획된 이벤트와 주요 행사들을 안내해드리고
새해에 달라지는 저축·대여·보험·복지 등 알아두면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정보들도 함께 소개합니다.

임인년 새해, 새 소망을 담은 행복의 문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늘 활짝 열려있길 바랍니다. ®

이달의 도움 회원

「The-K 매거진」에서는 매월 매거진 제작에 도움을 주신 회원 여러분과 스태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22년 「The-K 매거진」의 첫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내어주신 인터뷰이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도움 회원과 스태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김연옥 회원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인생 이모작’ 취재를 위해 찾아간 충남 홍성에서 김연옥 회원을 만났습니다. 김연옥 회원은 이홍재 회원의 아내이자 퇴직 교사로 공제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홍재 회원님과 함께 동요 지킴이로 활동하며 매니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김연옥 회원은 “인생 2막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얻은 선물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퇴직 후 제가 여생을 활기차게 봉사하며 보낼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 여건을 허락받은 것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덧붙여 김연옥 회원은 “사랑을 잃으면 교육을 잃는다”라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새해에는 이 따스한 마음이 더 많은 이에게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꺼리’ 모임 현장, 오른쪽이 정호경 회원

천안 쌍용고등학교 정호경 회원

“아이들의 삶 속에 과학이 스며들게 하고 싶어요”

‘꿈 너머 꿈’의 주인공 이승택 회원이 이끄는 교사 학습 공동체 ‘꺼리’는 현재 12명의 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 교사들의 학년도, 과목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는 열정은 똑같습니다.

6년 전 정호경 회원은 수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 ‘꺼리’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각거리’를 전달하고자 시작해 지금까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누구나 탐구」 도서 집필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통해서도 과학을 즐길 기회를 주게 되어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이런 활동에는 리더인 이승택 회원의 도움도 매우 컸는데요.

앞으로도 꺼리 회원들과 함께 아이들이 보물찾기처럼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누구든지 과학을 즐기며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밝은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겨레 ‘함께하는 교육’ **김지윤 기자**

“올바른 공교육이 우리나라의 미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필자인 김지윤 기자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교육 현장을 취재해오면서 ‘교육 백년대계’라는 말을 비로소 정확히 이해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김 기자는 “모든 어른은 자신을 비롯한 누군가의 어린 시절에 빚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은 삶의 기둥과도 같은 것이죠. 올바른 공교육이 개인의 인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의 계획도 전했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애써 숨기는 아이, 방과 후에도 학교를 쉽게 떠나지 못하는 아이, 편의점 앞에서 동전 개수부터 가늠해보는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교육 칼럼을 이어가겠습니다.”

유현준 건축사무소 **김지현 사원**

“건축 철학의 공유 통해 성공적 소통 이끌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건축가 중 한 명인 유현준 교수님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김지현 사원은 유 교수님과의 인터뷰에 징검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방송·인터뷰·칼럼·사업·학교 등의 일을 병행하는 유 교수님을 위해 소통을 책임지는 김지현 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까지 오픈하면서 더 많은 관심과 연락을 받는 상황이라고 김지현 사원은 귀띔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에 대한 교수님의 철학을 공감하고 존경하며 저와 소통하는 많은 분에게 그 모습을 잘 전하고, 추진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달의 도움 스태프

“공제회와의 네 번째 새해, 더 많은 회원과 더 행복한 이야기로 만날게요”

이성미 작가

2018년 12월 31일 「The-K 매거진」 편집실에서 처음 인터뷰 의뢰를 받고, 공제회와 함께 벌써 네 번째 새해를 맞이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작은 아버님, 막내 고모님께서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사는 좋은 사람’이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기뻤습니다.

「The-K 매거진」 참여 작가로서 알게 된 것은 ‘교사라는 직업의 위대함’입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바른 성장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거듭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선생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최일선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전국 어디에 계시든 「The-K 매거진」을 통해 찾아뵐게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노고와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The-K 예술가」는 그림·조각·서예·시 등 회원님들의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지상 갤러리입니다.
회원님들의 아름다운 재능과 꿈을 지면에 담아 더 많은 회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연가리, 겨울 소견 | 양현모 (前 수명고등학교)

한지, 수묵담채 86 x 63cm, 2017

작가 노트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연가리. 백두대간에서 진동계곡으로 흐르는 삼둔 사가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소박하게 곰취밭을 일구고 민박을 운영하는 친구의 집을 배경으로 눈 쌓인 고요함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설날 아침에

김종길

매양 추위 속에
해는 가고 오는 거지만

새해는 그런대로 따스하게 맞을 일이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숨 쉬고
파릇한 미나리 싹이
봄날을 꿈꾸듯

새해는 참고
꿈도 좀 가지고 맞을 일이다.

오늘 아침
따뜻한 한 잔 술과
한 그릇 국을 앞에 하였거든

그것만으로도 푸지고
고마운 것이라 생각하라.

세상은
험난하고 각박하다지만
그러나 세상은 살 만한 곳

한 살 나이를 더한 만큼
좀 더 착하고 슬기로울 것을 생각하라.

아무리 매운 추위 속에
한 해가 가고
또 올지라도

어린것들 잇몸에 돋아나는
고운 이빨을 보듯

새해는 그렇게 맞을 일이다.

WRITER

김종길 시인[1926-2017] 본명은 김치규로 시인이며 영문학자이다. 혜화 전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47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문』이 입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성탄제』, 『하회에서』, 『황사 현상』 등이 있다. 한국시인협회장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를 역임하였고, 목월문학상, 청마문학상, 육사시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민훈장 동백장과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The-K 예술가」 코너는 예술, 문학적인 역량을 갖춘 회원 여러분의 사진·그림 등으로 채워집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공제회원 22인의 2022년 삼행시 버킷리스트

‘임인년(壬寅年)’ 한 자 한 자에 희망찬 2022년의 소망을 담아봅니다.

지난 2021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보고 싶은 이를 만나기도, 가고 싶은 곳을 가보기도 쉽지 않아 유독 아쉬움이 크게 남는 한 해였습니다. 「The-K 매거진」은 지난 12월호를 통해 모든 교육 가족을 응원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마음속에 간직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담긴 ‘임인년’ 삼행시를 모집했고, 무려 4,103명의 교육 가족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팬데믹이 끝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사연들을 비롯해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다짐, 가족들과 떠날 여행 계획, 잠시 주춤했던 운동과 금연 의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고백까지….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의미 있는 사연이 가득했습니다. 절제된 한 편의 시처럼 특별하고 재미있는 소중한 글들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희망찬 2022년을 맞이하여 회원님들이 희망하던 모든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임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생활에 코로나19가
침투해 매우 힘들었던 한 해가 저문다.

인 인간관계의 단절! 가족, 친구, 직장 모임 등에
많은 제약이 따라 어려움을 겪었다.

년 연초부터 마스크 벗고 “하하하” 크게 웃고 싶다.

강숙 회원 / 조선간호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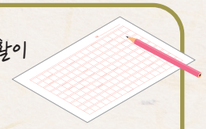
임 임인년에는 이런 교사가 되고파라.

인 인기 선생님은 못되어도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 되리.

년 연습 없는 인생살이에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도록 용기 주는 선생님 되리.

김나미 회원 / 광안초등학교

임 임용되어 매진한 40여 년의 교직 생활이



인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퇴직 후 삶에

년 연착륙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터이니, 날마다 읽고 쓰고
익히기에 힘써 임인년 새해에는 신춘문예에 응모하고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내
인생사에 새롭게 추가할 것들을 연속하여 성취하리라.

박용석 회원 / 송원고등학교

임 임인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올해 복직해 헤매는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인 인제 학교에 잘 적응했으니 2022년에는 저도 여러분을
많이 돕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년 연말연시 즐겁게 보내시고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요~ 고맙습니다.

송경란 회원 / 감정중학교

임 임기 동안은 열정과 패기로 일하자!

인 인정받고, 박수받으며 떠날 수 있도록,

년 연식이 쌓일수록 겸손하고 도태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자. 임인년에는 엑셀 1급에 도전!
아리아리~ 힘내자!

박재정 회원 / 예산고등학교

임 임심이박(臨深履薄)이라, 즉 깊은 곳에 임하듯 하며
얇은 데를 밟듯 세심히 주의하면서

인 인생삼락(人生三樂) 곧, 부모가 다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하며 하늘과 사람에 부끄러움이 없고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즐거움을 누릴 것을 기원하니

년 연년세세(年年歲歲) 해마다 하는 이 소망이 임인년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응곤 회원 / 대구해올중고등학교

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고생하는 의료진 선생님들,

인 인제 곧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년 연초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정호태 회원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임 임시공휴일이 있는 2022년 대통령 선거일(3월 9일)과
동시 지방선거일(6월 1일)에

인 인정받을 수 있고 진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훌륭한 리더를 아침 일찍 남편과 투표 후

년 연차 낸 듯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과 따스한 봄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 인생샷을 찍어 책상 위에 놓고
싶습니다.

천은경 회원 / 보령 남포초등학교

임 임신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 인연이 닿아 건강한 아가가 곧 엄마 아빠에게 잘 찾아오길. 소중하고 또 소중할 우리 아가야,

년 연말에도 내년에도 언제나 건강하게 짠- 하고 만나기를 소망해. 언젠가 직접 만나게 되는 날, 엄마 아빠의 모든 사랑을 다 줄게. 꼭 만나자!

김민지 회원 / 청주 남성초등학교

임 임용고사를 준비하며 교사로서 능력과 자질을 한껏 키우며 아이들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하던

인 인고의 시절이 있었건만, 지금은 현실과 타협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년 연단에 서는 참된 스승이 되겠습니다.

김경문 회원 / 여주 대신고등학교

임 임기응변으로 유지해온 나의 무계획적 재무 상황을

인 인제는 「The-K 매거진」을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부하며 일변, 원변

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모아 10년 안에 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경제 똑똑이로 거듭나고 싶다.

이승하 회원 / 고흥 풍남초등학교

임 임시 보호 봉사에 대한 오래전 결심을 실천해야지!

인 인간과 동물이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공존하는 세상을 위한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지!

년 연말이 되니 추위에 떨고 있을 길에서 생활하는 동물들 생각에 계속 마음 한편이 시리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최연실 회원 / 대구 성화중학교

임 임무가 저희에겐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싸워야 하는

인 인류에게 다시 없을 것 같은 치명적이고도 끈질긴 녀석이네요. 하지만

년 연말에는 이 모든 것에서 회복된 일상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박성현 회원 / 부산대학교병원

임 임상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인 인간애를 실천하는 모든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

년 연일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끊이지 않는 혹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끝까지 희망 잃지 말고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합시다. 파이팅!

홍근우 회원 / 경북대학교병원

임 임박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힘내자! 아~자!

인 인제는 100일 넘어가고 있다.
앞으로 1,000일, 10,000일이 되는 날까지

년 연이어 묵묵히 이어갈 것이다.
온갖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금연과 절연'의 이 굳은 의지를 기어이 꽃피우고 말리라!

최정운 회원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임 임신이 가능한 청춘이라면 딸 하나 낳아도 좋을 텐데.

인 인정도 많고 잘 자라준 효자 아들로 충분하지만

년 연분 있는 며느리감 만나 딸 가진 양 다정하고 싶구나.

황선희 회원 / 前 전주서신중학교

임 임자, 몸이 불편한 엄마를 모실 수 있게 해주어 정말 고맙소.

인 인품이 훌륭한 당신이지만, 혼자 연로하신 장모님 모시고 대학생 아들 건사하며 살려니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소.

년 연말연시 따뜻하게 보내고, 임인년에는 우리 둘이 여행 한번 다녀옵시다. 파이팅!

김흥제 회원 / 前 곡반중학교

임 임했던 일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인 인생 중 내가 생각했던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의 좋은 기억을 간직하며 과거 다툼이나 사소한 나쁜 감정에

년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인연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정지수 회원 / 선창유치원

임 임인년에는 신축년까지 지속되던 코로나19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스크 벗고 밝게 웃으며 서로

인 인사 나누는 그런 매일이 주어진다면 사랑이 넘치는 나로 거듭나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주변에 도움 되는 사람이 되어 배려와

년 연민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유지은 회원 / 군산동고등학교

임 임을 그리워하는 93세 우리 할아버지,
"이러다 보지도 못하고 먼저 죽겠다"라고 하시네요.

인 인제는 한 번 만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쓰러지신 후 입원한 할머니를 못 뵌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년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찾아오면 온 가족이 모여 밝은 모습으로 사진 한 장 남기고 싶네요.

조은경 회원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임 임용된 지 20년을 기념하며

인 인정받고 아이들을 존중하려는 나의 노력을 더 칭찬하고

년 연마다 다짐하던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을 실제로 완성하면서 대학원 파견 연수에 꼭 합격하고 싶어요.

여민정 회원 / 청주 산남중학교

임 임인년에 환갑이신 우리 아부지. 일하시느라 지금껏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다니며 고생만 하셨네요. 아부지께

인 인생 버킷리스트가 무엇이냐 여쭤보니, 기차여행을 하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년 연말에 계획 잘 세워 임인년 봄날에 새로 생긴 '더케이 기차여행'을 이용해 고생만 하신 우리 아부지와 전국 여행을 다니면서 예쁜 사진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김경하 회원 / 왕방초등학교

◀이벤트 당첨 확인하기

※ 지면에 소개된 22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5만 원)을 드리고, 나머지 220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3만 원)을 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두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The-K 매거진」이 응원하겠습니다.

「에세이」는 교육 가족의 마음이 느껴지는 공감 에세이로, 업무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교육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내 어린 시절 고향마을의 사계

글 조원표 회원 (김포 푸른솔초등학교 교사)

어릴 적 우리 집은 큰 마당과 사립문이 있었다. 평소에는 대부분 안방과 뒷방을 사용했고, 사랑방은 대부분 농작물을 보관하는 용도였다. 인정 많은 어머니는 사랑방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오갈 데 없는 사람이나 물건을 팔러 온 분에게도 사랑방을 내어주곤 하셨다. 많은 분이 그 사랑방을 거쳐 갔는데 언제나 무료였다.

우리 집 마당은 동네 친구들의 놀이터였다. 마을 입구에 집이 있었고, 마당이 제법 커서 아이들은 자치기, 팽이치기 등을 실컷 하며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여름이면 들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형제끼리 등목을 해주었다. 흠뻑 땀을 흘린 뒤 찬물을 등에 끼얹고 난 후 수건으로 닦을 때는 특유의 시원함과 개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고추와 호박 몇 개를 통째로 송송 썰어 넣고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는 꿀맛이었다. 어쩌다가 동네 어르신들이 막걸리 한잔이라도 드시고 오래전 흘러간 노래를 부르면 마을 노래자랑으로 이어졌다.

가을걷이 때가 되면 콩과 팥, 고추 등을 말리느라 앞마당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농작물로 꽉 들어찼다. 씨받이로 처마 밑에 매달아 놓은 옥수수를 쳐다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성해져 괜히 기분까지 좋았다. 호박, 가지, 토란대 등의 나물을 가을볕에 말려야 색과 맛이 오래 간다며 어머니는 햇볕만 나면 광주리에 담아 마당 한가운데에 내어놓곤 하셨다.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빨갛게 익은 감을 따서 큰 항아리에 넣은 뒤 우려내면 이튿날 떫은맛은 사라지고 달고 맛있는 감으로 변신한다. 그리고는 추운 겨울 까치를 위해 까치밥은 꼭 남겨 두셨다.

온종일 시끄럽게 뛰노는 아이들에게 어머니는 "얘들아, 위험한 장난은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크게 개의치 않으셨다. 내 나이 네 살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 그렇지만 마음만은 늘 부자셨다. 그래서인지 우리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찾아와 담소를 나누거나 윷놀이를 했다. 그중에는 친하게 지냈던 병수 형 어머니도 계셨는데,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 날이 많으셨다.

어느 추운 겨울, 첫눈이 온 동네를 하얗게 수놓았다.

"원성아"(당시 집에서 나를 부르던 이름)

사립문 쪽에서 힘없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병수 형 어머니셨다. 지병으로 몸은 야윌 대로 야위셨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다.

"아휴, 형님 오셨어요."

그 소리에 아침을 드시다 말고 어머니는 부리나케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지금 생각해보니 병수 형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다가 우리 집으로 곧장 오셨던 모양이다.

그해 겨울, 총각김치에 보리가 많이 들어간 밥이 전부였지만 어머니는 병수 형 어머니께 사랑방을 내어주고 아침저녁으로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 방을 따스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따뜻한 정을 나누며 우리는 한겨울을 함께했고, 병수 형 어머니는 병세가 점차 회복되었다. 비록 가난했지만, 인정만큼은 넉넉해서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날들이었다. 지금은 어머니도, 병수 형 어머니도 저 먼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셨지만, 첫눈이 올 때면 까마득한 세월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와 지병으로 고생하면서도 병수 형님을 사랑과 정성으로 잘 키우신 병수 형 어머니가 생각난다. ⓚ

회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성장하는 교육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에세이」 「나도 칼럼니스트」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업무 현장을 비롯해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교육 가족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주제는 무엇이든 환영입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교육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의 작품을 선정해 매거진에 실어드리겠습니다.

★ 원고 분량 : 원고지 12매 (A4 1매 반)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마감일 : 매월 10일

「좋은 사람 좋은 생각」은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제시하는 멘토들에게 귀 기울이고 교육 철학과 인생의 가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진정한 나로 다시 살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한성열 명예교수

누구나 살아가며 한 번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 세상에 홀로 던져진 듯한 외로움과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 같다는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마저 쉽게 거두게 되는 요즘, 과연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복잡한 마음을, 한성열 교수는 진심으로 듣는다.

글 정라희 / **사진** 이용기

> 갱년기의 '갱'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이 시기에 이르러 인생을 다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나를 일으키는 긍정의 힘

나이를 먹어도 사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지만, 이만큼 살았으면 자기만의 해답이 생길 줄 알았다. 주변에서는 종종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라"고 조언한다. 그런데 무엇보다 궁금하지만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 나조차 모를 복잡한 심경을 혹시 누가 알아줄까. 한성열 교수는 미지의 영역인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위로를 건네는 심리학자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한성열 교수는 긍정심리학을 우리나라 대학에서 처음 강의한 인물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유학 시절, 「몰입의 즐거움」 저자로 유명한 긍정심리학의 대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 교수로부터 직접 박사과정을 지도받았다. 당시 긍정심리학은 심리학계에서 매우 주목받던 분야. 단점보다 장점에 먼저 주목하는 긍정심리학을 연구하면서 그는 '긍정의 힘'이 삶에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부터 '너는 이런 점이 부족하니 고치면 좋겠다'는 지적을 자주 받습니다. 교육도 부족한 점을 찾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요. 반대로 겸손이 미덕이라며 자신이 잘하는 점을 내세우면 '건방지다, 잘난 척 한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잘하는 건 안 해서, 못하는 건 힘들어서 재미없는 것 같죠. 그러니 인생이 힘들게 느껴질 수밖에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긍정심리학은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감정보다 개인의 강점과 미덕 등 긍정적 심리에 초점을 맞춘 심리학의 한 갈래'다. 같은 현상을 두고 긍정적인 사람은 다르게 해석한다. 물이 절반 정도 담긴 컵을 보고 한 사람은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긍정의 시선은 일상에도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기계적 긍정이 아니라, 생각의 전환을 통한 긍정이다. 이는 그가 심리학자로서, 상담가로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밑바탕에 깔린 기본 관점이다.

나를 찾고 싶은 중년의 고민을 살피다

긍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가 공감한다해도 이를 삶으로 체화하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미래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도 잦아졌다. 흔히 새해를 맞이하면 '희망'을 먼저 말하지만, 어쩐지 요즘은 나이 한 살 더 먹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더는 '젊지 않다'는 생각이 자신을 옭아매기도 한다. 중년이 되면 마음이 덜 흔들릴 줄 알았는데, 마치 사춘기 시절로 돌아간 듯 감정이 요동친다. 사회적 위치에 대한 불안과 신체적 노화로 인한 무력감 등 우울과 불안을 부추기는 요소도 늘어난다.

"중년은 조직에서 나의 한계가 어디인가를 깨닫는 시기입니다. 요즘 대기업 이사진의 평균 연령이 50세 내외라고 합니다. 대략 40대 중반이면 자신이 조직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사장은 못 되어도 임원은

한다'는 꿈을 갖는데, 문득 자신이 밀려나는 기분이 들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나이 오십이면 '한창때'라고 말하지만, 정작 세상은 중년에게 하루빨리 무대 밖으로 내려오라고 손짓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로 많은 사람이 자신이 나이 들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내담자에게 자주 듣는 말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회문화가 달라지고 있지만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의 많은 여성은 결혼 이후 '누구 엄마'로 산 기간이 길었어요. 자신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누구 엄마'로 지내다가 자녀들이 성장하고 나면 어느 순간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는 하지요."
'나를 찾고 싶다'는 중년들의 간절한 물음. 이런 고민은 존재론적 의문만은 아니다. 실제로 중년에는 다양한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거나, 갱년기를 지나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변화를 겪기도 한다. 배우자의 외도, 이혼 등 가정에 찾아오는 위기도 있다. 한성열 교수는 살아가며 어느 순간 부딪히는 의문을 풀어주고자 글을 쓰고 심리학 콘서트를 열며 중년들이 스스로 자기 마음에 귀를 기울이게 했다. 지난 9월 출간한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는 중년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법을 안내한다. 그는 어설픈 충고 대신 카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의 심리학과 전 생애 발달심리학에 근거해 중년에 부딪히는 다양한 삶의 주제를 풀어냈다.

인생의 중간에서 다시 나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책의 서문에서 한성열 교수는 카를 구스타프 융의 회고록을 인용한다. "본보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없다. 당신이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당신의 삶을 살겠는가?" 사람들은 인간의 삶을 성장, 유지, 퇴보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는 한다. 성장의 정점이 청년이라면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가는 여정을 퇴보로 오해한다는 것. 여기에는 '젊음만이 좋은 것'이라는 편견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는 "발달은 변화이지 성장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설령 신체적으로는 퇴보할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성숙해지는 시기가 바로 중년이다.
"갱년기(更年期)의 '갱'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이 시기에 이르러 인생을 다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다시금 '나'로 제대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나이 듦'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다. 그도 대학에서 정년을 앞두었을 때는 자신의 책상이 구석진 곳으로 옮겨지는 꿈을 며칠에 걸쳐 꾸었을 만큼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때부터 고민하며 인생 2막을 준비했다. 그렇게 2017년에 고려대학교에서 퇴임한 이후 사역자를 위한 상담 목회 아카데미 '예상'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상담과 의사소통 전문가를 양성하는 상담 교육원 '만남과 풀림' 등 교육기관 두 곳을 개설했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명예교수, 미국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과 데이브레이크 대학교의 석좌교수로서도

> 심리학은
> 외부 환경을 바꾸기보다
>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방법을
> 달리해주는 학문입니다.

여전히 활발히 강의하고 있다. 무대 한가운데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시기에 맞는 자기 자리가 있게 마련이다.
한성열 교수는 예나 지금이나 매일같이 제자들과 소통하는 다정한 선생님이다. 스승에게 자랑스러운 제자가 되고 싶어 더 열심히 살고 싶다는 고백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감정은 묻어두지 않고 표현할 때 비로소 서로의 마음이 진심으로 통한다. 제자들은 내리사랑을 말하지만, 그는 제자들과 대화하며 젊은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새롭게 배운다. 이렇게 서로 지지하는 마음들이 세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심리학은 외부 환경을 바꾸기보다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방법을 달리해주는 학문입니다." '코로나 블루'가 일상 용어가 된 요즘, 한성열 교수는 '코로나19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사람들의 반응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곧 심리학이라고 설명한다. 심리학이 책 속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닌 삶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심리학의 문턱을 낮추고 미래를 잃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신을 찾게 해주고 싶은 소망 때문이다.
임인년 새해에도 그의 소망을 담은 활동들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길 기대해본다. ⓚ

「역사 속 숨은 영웅」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의미를 남긴 교육자들의 흔적을 찾아서 그들의 헌신을 기리고 되새기는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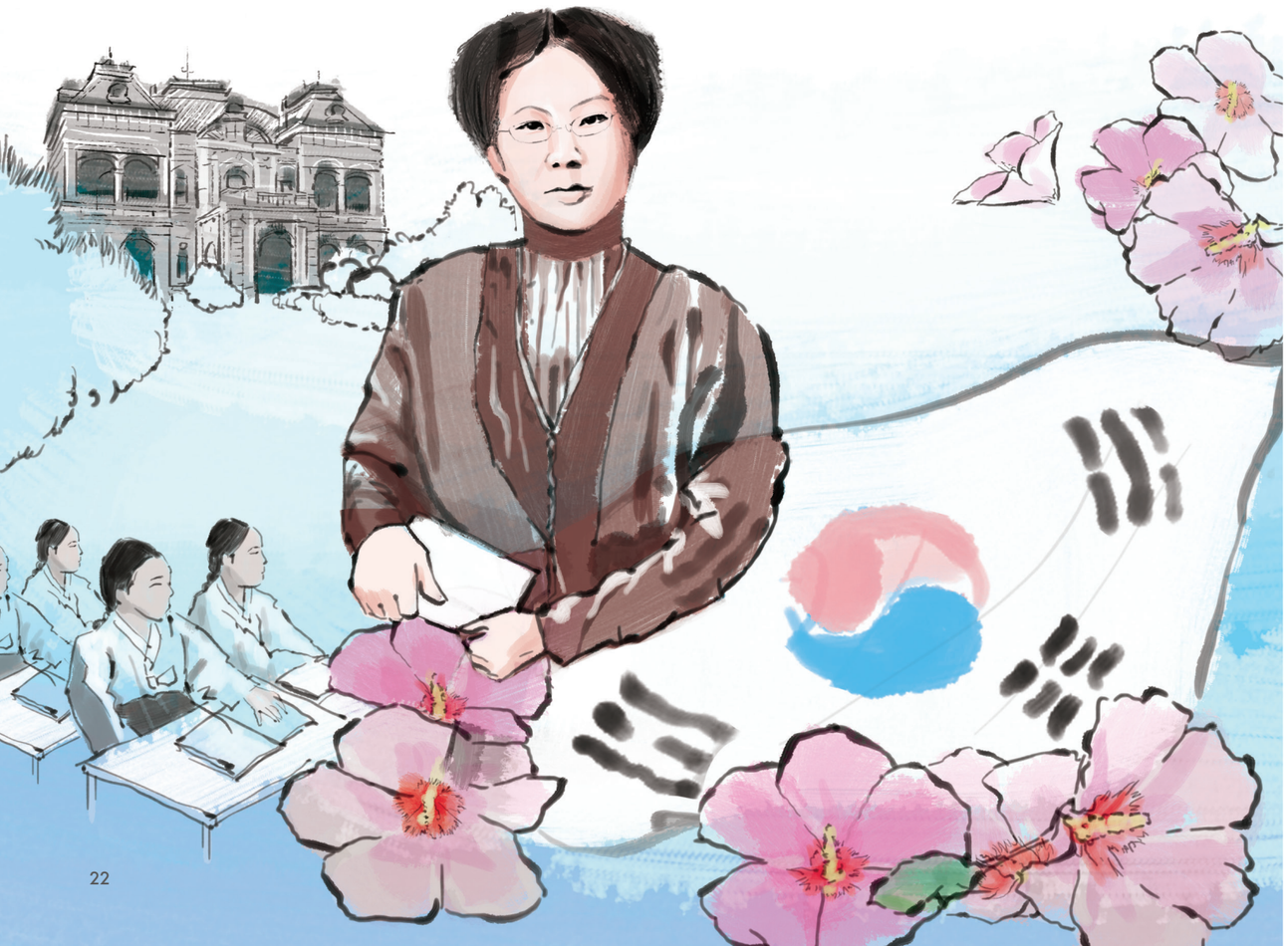
"살되, 네 삶을 살아라!"

독립운동가이자, 여성 인권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 차미리사 선생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동물권, 소수자의 인권과 함께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의 방증이기도 하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150여 년 전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살아야 했던 여성들의 삶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엄혹했을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도 여성의 권리를 신장해야 함을 주장하고, 여성 교육 확대를 온몸으로 실천했으며, 조국 독립의 당위성을 외치고 현장에서 투쟁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차미리사(1879~1955) 선생이다.

글 우경윤 이우학교 역사 교사

우경윤 교사는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성남 이우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또 교육 불평등 해소, 아동 청소년의 교육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함께여는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천연균에서 찾은 오래된 미래」,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동양편」, 「교과서를 쓴 인물」 등이 있다.



'섭섭이'가 아닌 '미리사'의 삶을 결심하다

차미리사 선생은 1879년 8월 21일(음력)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아버지 차유호와 어머니 장씨 사이에서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위로 5남매가 일찍이 죽고 난 후 임신한 부모는 태어날 아이가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부모의 기대와 달리 딸이 태어나자 '섭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당시 보통 집 여인들은 의미가 담긴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다. 공문서에 이름을 올릴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열일곱 살이 되던 1895년에 김진옥과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다. 하지만 결혼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하고 딸과 함께 친정으로 돌아오게 된다. 일찍 사별을 경험한 고모가 오늘날 서울 개신교회인 상동교회로 그를 이끌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위안을 가져다주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개척하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불어넣었다. 기독교에서 남성과 평등한 인격체로서의 여성을 발견하고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는다. 당시 우리 민족을 억압하던 신민(臣民) 구조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그의 신앙심은 깊었고, 성실했다.

선교사 스크랜턴에게 세례를 받아 '멜리사(Melisa, 美理士)'라는 세례명을 얻은 후 서구식 관습에 의해 남편의 성을 따라 '김미리사'로 불리다가 1936년에야 본성을 쓴 차미리사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다.

미국 유학 시절의 차미리사 선생 [출처 : 덕성여대신문]

양장 차림에 양산을 들고 있는 차미리사 선생의 30대 후반 모습 [출처 : 덕성여대신문]

유학 생활을 통해 확고해진 평등과 인권 의식

구한말, 개신교회는 근대 문물을 소개하고 근대적 사고를 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교육을 병행했다. 특히 믿음이 깊은 신앙인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기도 했고, 차미리사 선생 역시 근대 여성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유학을 준비했다. 노모와 어린 딸을 두고 길을 나서야 하는 아픔이 있었으나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열망과 조선 여성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명이 이별의 슬픔을 뛰어넘게 했다.

1901년 중국에 있는 감리회 소속 학교로 유학을 떠난 그는 영어·중국어·신학 등을 공부하며 미국 유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4년간의 중국 생활 중 병에 걸려 귀가 어두워지는 장애를 얻었지만, 선교사의 도움으로 선생이 스물일곱이었던 1905년, 미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도시 패서디나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일하며 공부를 시작했다. 이곳에서 평등, 인권에 대한 깨달음을 준 마거리타 레이크(Marguerrita Lake)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마거리타는 동양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당시, 동양인과 여성, 아이 등 소외된 이들에게 숙소를 마련해주고 영어·성경·기술을 가르치는 활동에 헌신한 인물이었다. 그와의 만남은 고국으로 돌아가 온 힘을 다해 여성 인권 신장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차미리사 선생의 신념을 확고히 하는 단초가 되었다.

구국 운동에 앞장선 깨어있는 여성 교육자

조선 여성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소명으로 교육, 계몽, 국권 회복이 필요함을 인식한 차미리사 선생은 이를 하나씩 실천했다.

1905년 미국에서 안창호와 함께 기울어가는 국운 만회를 위해 「독립신문」 발간에 참여하고, '대동교육회'라는 교육 단체를 결성해 고국 학생들의 유학 활동을 지원하고 서적을 출간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나갔다. 1907년에는 장경, 방사겸 등 미주 지역 애국지사들과 함께 구국 운동 단체 '대동보국회'에 참여해 애국 활동에도 힘을 보탰다. 대동보국회 기관지 「대동공보」의 주필로 활약하며 조국의 현실과 미래를 고민했고, 1908년에는 미주 지역 최초로 '한국부인회'를 꾸리고 회장으로서 한인 노동자를 위한 봉사 활동을 펼쳤으며, 기금을 마련해 고국의 보육원 설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1910년에는 선교사들의 후원을 받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있는 스캐리트 성경학교에 입학해 학업에 몰두할 수 있었고, 졸업 후 귀국한 뒤에는 배화학당에 부임해 사감 겸 교사로 여학생들의 민족 교육에 앞장섰다.

교육에 대한 그의 의지는 학교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방과 후에는 야학을 만들어 지역사회의 부녀자와 여자아이들에게 한글과 근대 의식을 가르쳤다.

차미리사의 흉상
[출처 : 덕성여대신문]

「매일신보」 1921년 7월 9일 자에 실린 여자강연대 기사와 사진
[출처 : 덕성여대신문]

1919년 3·1운동 때는 국내외 비밀 연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1920년에는 '조선여자교육회'를 창립해 좀 더 많은 여성이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해 3월 1일에 배화학당 여학생들이 3·1운동 기념 만세운동으로 붙잡히는 사건으로 교사직을 사임하게 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더 큰 행보를 이어갔다.

1921년에는 조선 최초로 여성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찾아가는 강연회'를 기획, 전국을 돌며 노래와 강연으로 희망의 씨앗을 심어나갔다. 한편 조선여자교육회 기관지 「여자시론」을 발간해 여성들의 의식을 고양하는 일에도 몰두했다.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의 삶을 일깨우다

1922년 차미리사 선생은 조선여자교육회의 명칭을 '조선여자협회'로 변경하고 협회 내에 양복과, 상업반 같은 교육과정을 설치함으로써 신문화 수용과 실력 양성을 도모하는 교육 사업을 펼쳤다. 1923년에는 기존 야학교의 명칭을 '근화(槿花)학원'으로 바꾸고 주간에 학교를 열어 교육적 역량을 확대해 나갔다. 그는 이후에도 근화학원 학생들과 함께 음악회, 연극 그리고 개인 강연 등을 개최했고, 이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1925년 근화학원은 가정주부에서 일반 여학교 과정으로 중점 교육 대상을 전환하고 보통학교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과를 설치했다. 그해 8월, 근화학원은 '근화여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이때 그는 학생들에게 "살되, 네 생명으로 살아라.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네가 깨달아 알아라"라고 말했다. 이는 조선 여성에게 주체적이며 독립적인 생각과 삶, 실천을 요구한 것이며, 여성이 완전한 인격체로서 존재함을 스스로 깨닫기를 바란 것이다.

차미리사 선생은 학교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1934년 재단법인 근화실업학원을 만들어 근화학교를 재단에 귀속시켰다. 여성과 조선이 독립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 같은 실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근화학교는 '근화여자실업학교'로 교명을 바꿨고 교육과정도 정비해 나갔다.

1936년 근화여자실업학교가 20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던 자리에서 차미리사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먼저 현명한 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잃은 곳에 무슨 참된 아내가 있으며, 진실한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당시 일제는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꾀했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교명으로 사용하는 근화여자실업학교를 용납할 수 없었다. 1938년 차미리사 선생은 일제의 강요에 못 이겨 교명을 '덕성'이라 바꾸고 학교를 지키려 노력했으나 계속된 위협 속에 결국 교장 직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여성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추진, 1950년에는 '덕성여자초급대학'을 설립했는데, 바로 지금의 덕성여자대학교이다.

하나의 조국을 꿈꾸며 영면한 차미리사 선생이 남긴 것

1945년 광복 이후 지식인들은 건국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대표적인 단체가 여운형 선생이 이끌던 '건국준비위원회'였다. 차미리사 선생 역시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이 위원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광복 후 한반도는 격동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상황이었다. 그에게 이념보다 중요했던 것은 분열 없는 하나의 조국이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무참히 깨져버렸다. 차미리사 선생의 심신은 더욱 약화했고, 결국 1955년 6월 1일 77세를 일기로 세상과 작별을 고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내게는 한 가지 한이 있다. 온전한 독립을 못 보고 죽는 것이 유한이다."

차미리사 선생의 일생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신을 철의 여인으로 만드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는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위한 복지를 실천한 사회운동가이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쓴 독립운동가의 삶이었다. 무엇보다 조선 여성들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메시지로 일깨운 여성운동가이면서 교육자였다. "살되, 네 삶을 살아라"라는 차미리사 선생의 외침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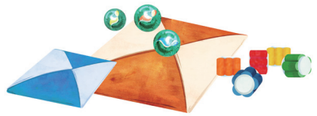
정부는 차미리사 선생의 공로를 인정해 2002년 건국공로훈장 애족장을 수여 했다. Ⓚ

염정동 예배당 지하실에서 사무 보는 광경
[출처 : 덕성여대신문]

「조선일보」 1934년 2월 11일 자에 실린 근화여학교 사진. 안국동 교사 앞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왼쪽 위 사진의 인물이 차미리사 선생
[출처 : 덕성여대신문]

교사 출신 김완기 사진작가가 소장한 1960~1970년대 전후 추억의 학교 사진을 만나보는 「우리 어렸을 적에」 코너를 통해 향수 어린 그 시절 학교로 함께 세대공감 여행을 떠나 보아요.

즐거웠던 놀이의 추억



어린 시절 학교 운동장에 나가면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그 기억들은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 아이들은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몸과 마음이 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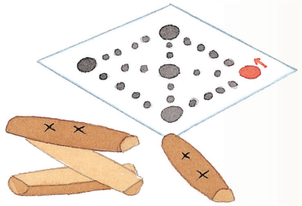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학교 운동장에는 그네, 철봉, 시소 같은 놀이 기구가 있었다. 하고 싶은 아이는 많은데 놀이 기구는 부족해 좀처럼 자기 차례가 오기 어려웠다. 미끄럼틀을 타겠다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 나와 길게 줄을 서기도 했다. 힘에 밀려 놀이 기구를 포기하는 아이도 많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는 걸 마다할 리는 없다. 친구들과 함께 놀이 기구 대신 맨손 놀이를 했다. 딱지 먹기, 비석 치기, 자치기, 구슬치기, 말뚝박기 등 활동적인 놀이와 공기놀이, 줄넘기, 사방치기 등도 즐겼다. 명절에도 다 같이 모여 윷놀이를 하며 논 기억이 있다. 놀이를 하며 아이들은 우정을 쌓고 추억을 만든다. 어른이 되어 만나도 어릴 때 놀던 기억을 곱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는 한다. Ⓚ

글 / 사진 김완기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前 성북교육청 교육장)

윷놀이 (1977)

설날 때때옷을 입고 친한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윷놀이를 즐기고 있다. 명절이면 빠지지 않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전통 놀이로, 집 안에서 가족끼리도 즐기는 놀이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윷놀이 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사방치기 (1975)

막대기로 바닥에 사방치기 지도를 그려놓기만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수 있었다. 요즘엔 운동장 한편에 사방치기 지도가 그려져 있는 학교도 있다.

딱지 먹기 (1969)

손에 잡은 그림 딱지의 수를 알아맞히는 딱지 먹기에 몰두하고 있다. 종이를 접어 만든 크고 두툼한 딱지를 쳐 넘기는 딱지치기도 즐겨 했다.

공기놀이 (1973)

공깃돌만 있으면 좁은 공간에서도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공기놀이를 즐겼다.

회원 여러분의 '어렸을 적 추억'을 담아드립니다.

「The-K 매거진」은 회원 여러분의 학창 시절 추억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절의 즐거웠던 순간이 담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도 「우리 어렸을 적에」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과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분야별 석학들을 만나 학교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칼럼 「오늘의 학교」입니다.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발상,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교육을 바꾸고 아이를 성장시키는 공간의 힘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유현준 건축사사무소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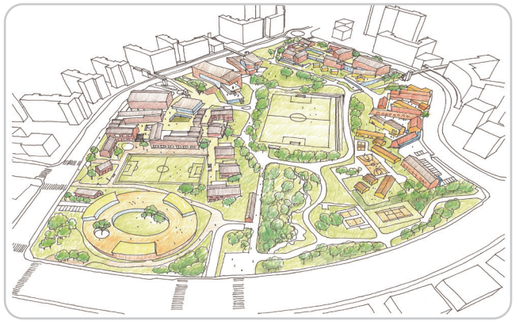
졸업한 학교의 이름은 달라도 우리 기억 속 교실은 대부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앞뒤로 난 문, 안팎의 경계를 지키는 네모난 창문, 칠판을 향해 정렬된 책상. 아버지가 다닌 학교와 내가 다닌 학교도 과밀(過密)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 세상은 바뀌었는데 학교는 바뀌지 않았다. 유현준 교수는 "교육이 바뀌려면 공간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글 이성미 / 사진 김수

QR 코드를 스캔하면 유현준 교수의 건축 철학과 학교 건축에 대한 솔직 담백하고 위트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학교에서 창의적인 학교로의 전환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온다. 누군가는 좁은 골목으로 쏙 숨어들었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 친구와 웃고 떠든다. 온몸으로 자연을 받아들인다. 1, 2층 주택 크기로 지어진 교실 동, 그 앞으로 놓인 각기 다른 모양의 마당. 마을을 닮은 이곳은 학교다. 202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에 빛나는 '스머프 마을 학교 : 송산중학교 증축 프로젝트'는 유현준 교수가 참여해 탄생시킨 학교로 이 곳의 학생들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꿈을 꾼다.



유현준 교수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학교 그림

학교가 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의 경계는 집 안으로까지 넓어졌다. '공간의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같은 학교'에 있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학교는 어떤가? 개인을 위한 공간이란 책상과 의자, 사물함이 전부다. 그마저 사생활은 지켜지지 않는다. 등교는 곧 외부와의 단절을 뜻한다. 딴 세상이다. 창문 벽이 높아 오늘의 하늘조차 제대로 올려다보지 못한다. 학교에서 짜놓은 시간표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부분 같은 수업을 듣는다. 같은 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온다. 학교에는 집단만 존재하고 개인은 없다.

집단만이 존재하는 획일적 공간이 탄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현준 교수는 저서 「공간의 미래」에서 "근대적 개념의 학교 공간은 '최소한의 교사로 최대한의 학생을 가르친다'는 효율성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는 획일화, 즉 똑같이 먹고 똑같이 가르치는 것이 '평등'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똑같은 공간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산업화의 특징은 표준화와 대량생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 공간 구성에도 반영되었죠.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이 균등하게 공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득은 늘었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테리어가 바뀌고, 몇몇 교실은 특별실로 바뀌었다. 첨단 기기도 들였다. 책상과 책상 사이의 간격도 더 벌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공간은 갈등을 일으킨다. '집단'과 '단절'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의 벽을 깰 시간

학교 건축에 대한 유현준 교수의 관심도 '갈등'에서 시작됐다. 건축가로서 그는 사람의 행동을 공간과 결부 지어 생각한다. 아버지로서 시선이 학교로 향하는 것은 당연했다. '우리 아이의 행동 변화가 학교 공간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자 학교가 달리 보였다. 아니, 자신의 기억 속 학교가 그대로 보였다. 여전히 학교는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종일 벽 안에 모여 있었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지도, 유연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지도 못한 채 자라나고 있었다.

"학교는 사람이 태어나 처음 사회적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으며 인격체로 성장하죠. 따라서 학교 건축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유현준 교수가 생각하기에 학교를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벽부터 없애면 된다. 학교와 외부 세계, 공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없애면 된다. 사고와 관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교육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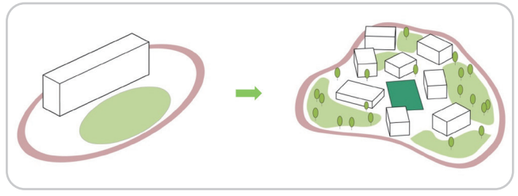
먼저 담부터 없애자. 그리고 하나의 공간을 잘게 나누자. 각기 다른 모양, 다른 색으로 건물을 짓고, 마당을 두자. 학년이 바뀌고 수업이 바뀔 때마다 다른 공간을 오가게 하자. 그 안에서 매일 다른 풍경을 만나고, 수업마다 다른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하자. 공간을 바꾸는 순간 아이들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학교 벽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 유현준 교수는 "'담장'이 아닌 '관심'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면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한다.

"담장이 없는 학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을까요? 아닐 거예요. 안전은 담장을 통해 유지될 수도, 관심을 통해 지킬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마을 안에 품어 누구나 우리 아이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초등학교는 위험해서 안 된다면, 고등학교부터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마저 어렵다면 선택권이라도 주면 좋겠어요. 다양한 모습의 학교를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이 곧 캠퍼스인 미래 학교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학교 건축을 바꾸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도쿄 후지 유치원은 도넛 모양으로 공간을 설계했다. 중앙 안쪽에 마당을 두고, 유치원 건물을 빙 둘러 지은 모습이 특징이다. 그렇게 하면 외부 세계로부터 안전하고, 모든 교실이 중간에 자리한 자연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다. 동그란 마당은 아이들이 끝없이 달릴 수 있게 한다.



일본 도쿄 후지 유치원의 도넛 모양으로 된 공간 설계

우리나라도 교육이 변하기 위해서는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의 변화는 교사 혹은 건축가의 변화로부터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이 바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간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기 위한 생각의 전환이, 실천이 필요하다. 유현준 교수가 생각하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미래 학교의 모습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다. 그가 그리는 학교는 공간의 경계 자체가 없다. 여행 간 타지역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혼자 한 등산도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장소의 캠퍼스에 국한되어 학업을 할 필요가 없다."(「공간의 미래」) 학교가 없는 학교, 온 세상이 캠퍼스인 학교, 이것이 유현준 교수가 그리는 미래의 학교다. 유현준 교수가 생각하기에 교사는 "학생에게 이미 내재해 있는 잠재력을 끌어올려 주는 사람"이다. 누구나 마음속 깊은 우물 안에서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그 두레박의 줄을 길게 해주면 된다.

유현준 교수가 건축가이자 교육자로만 살아도 바쁜 일상의 틈을 '알쓸신잡', '월간 커넥트' 속 방송인으로, '셜록 현준' 속 유튜버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살 것인가」 「공간의 미래」의 작가로, 강연자와 인터뷰이로 채우는 이유도 더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희망'을 꺼내주기 위해서다. 더 좋은 공간을 바라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현준 교수는 오늘도 펜을 든다. 그러고는 쓴다. "멋진 미래를 창조해주세요." ⓚ

우리의 미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제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겪으며 혁신적으로 변화 중인 우리 교육의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코너를 통해 함께 고민해 봅니다.

공간 혁신, 네모난 교실에서 더 큰 꿈을 꾸게 하다

이제는 학교를 '삶의 터전'으로

사회학자 미셸 푸코는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학교 공간이 교도소와 유사하다"라고 한 바 있다. 회색 시멘트로 이뤄진 건물 장벽, 높은 담벼락, 하나같이 네모난 교실 등 학교 건물의 생김새가 묘하게 감옥을 닮았다는 말이다.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학교가 지닌 '공간성'을 분석한 것이다. 네모진 공간에 맞춰 사람을 체계적으로 길들여 표준화한다는 것도 시사점을 주고, 공간이 가진 민주성과 비민주성에 관해 생각하게 한다. 우리의 교육 현장에도 이제 공간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교육 공간의 주인인 학생들에게 교실을 삶의 터전으로, 통제가 아닌 창조의 원천으로 돌려주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글 김지윤 한겨레 '함께하는 교육' 기자

공간 혁신의 사례, 섬강초등학교 전경

'학교 공간'도 교육의 일부다

학교 공간에 관한 여러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총 18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추진 중이다. 공간 혁신·에너지 절약·학생 건강을 고려한 제로 에너지 그린 학교,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스마트 교실, 지역사회와 연결된 학교 시설 복합화 등을 사업 방향으로 내세웠다.

2023년부터 부분적으로 도입돼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도 학교 공간 논의는 필수적이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과목을 선택하고 강의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학교 공간에 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전반과 오후반이 따로 있고, 겨울이면 교실 한가운데 난로를 피웠던 시절에 학교를 다닌 이들은 '그 옛날 학교 공간'에 익숙하다. 당시 학교 모습을 떠올려보면 디자인 요소는 기대할 수 없었다. 교실, 화장실, 운동장 정도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공간이었다. 페인트칠이 벗겨진 복도, 왁스 칠을 해야 하는 교실 나무 바닥, 겨울이 되면 꽁꽁 언 수돗가 앞에서 청소용 마대 자루를 들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한편으로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만 잘하면 되지'라는 말에 부합한 아이들만이 '그 시절 학교'에 잘 적응한 것도 같다. 학교에서 오직 교실만이 큰 의미를 가졌던 때의 이야기다.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지난 2019년 '혁신학교 10년, 현장을 가다' 기획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혁신학교를 찾아다녔다. '학교 공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기회였다.

당시 혁신학교 도입 10년을 맞이해 공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주제로 이모저모를 살펴봤다. 경쟁 아닌 협력, 주입 아닌 토론, 배제 아닌 배려가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이고 이를 뿌리 삼아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가진 학생을 키워내는 것이 혁신학교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 혁신'을 이룬 학교를 취재하면서 강원도 원주에 있는 섬강초등학교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다. 당시 전국에서 공간 혁신 프로젝트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를 진행했다. 문턱 높고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교육 환경이 갖추어져야 민주시민 교육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공간 혁신을 위한 '개교준비팀' 등을 운영한 학교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큰 감동을 했다. 학교 공간이 갖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토론하는 교사들의 모습에서 역동하는 공교육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교실, 그 공간의 주인은 학생이다

섬강초등학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한다. 해당 학교는 2019년 3월 문을 열었다. 공간 혁신에 관심 있는 교사 25명을 중심으로 2018년 8월 '개교준비팀'이 꾸려졌고, 이들은 건축사무소의 설계 도면을 하나하나 톺아보며 개방적이고 탈권위적인 공간 만들기에 돌입했다.

층마다 놀이, 전시, 휴식이라는 테마로 설계한 섬강초등학교

개교준비팀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와 운동장에 일렬종대로 서 있는 학생들이 자동 연상되는 구령대부터 없앴다. 대신 아이들이 학기 중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무대를 설계에 반영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공간을 살펴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학교 1층에 통유리로 된 콘퍼런스 공간에서는 주제 통합 수업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어떠한 명령문도 없다. 그 공간은 그저 아이들과 교사들의 활동으로 '따로 또 같이' 채워지는 공간이다. 햇볕이 드는 계단과 2층부터 4층까지 길게 이어진 스토리 스텝에서는 작은 발표회나 버스킹 공연도 열린다. 교실 밖으로 나오면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벽 없는 '무한 교실'이 생겨나는 것이다.

개교 후에는 공간 혁신의 방향을 구체화시킬 '공간혁신팀'이 꾸려졌다. 한 달에 한 번 교사 13명이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들은 각 반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제했다. 공간 혁신 경험과 디자인 씽킹 기법(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인간적 가치, 실용성, 전략적인 대안을 찾는 문제 해결 방식)을 활용해 교내 곳곳에 학생 쉼터와 놀이 공간 등을 만들었다. 이 학교의 동아리방과 음악실, 과학실 등은 하루 수업이 끝난 뒤 더욱 생기가 돌았다.

학교 공간 이곳저곳을 왁자지껄 찾아다니며 활기를 불어넣는 학생들의 모습. 오전부터 종일 학교를 둘러보며 취재한 내가 보기에도 섬강초등학교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였다. 당시 내가 만난 이 학교 아이들은 "여기는 선생님한테 혼나는 무서운 학교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같은 학교"라고 말했다. 참 인상 깊었다.

1~2학년 학급이 배치된 2층에는 미로 찾기와 실내 암벽등반이 가능한 어린이 놀이 공간이 설치돼 있었다. 3~4층 복도 빈 곳에는 아이들이 오가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탁자와 의자를 갖춘 쉼터를 마련했다. 학교 건물 가운데 공간은 1층부터 4층까지 원통 형태로 연결해 개방형 구조를 갖췄다. 두 층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인 스토리 스텝 근처에는 소파가 놓여 있고, 자석 페인트를 칠해놓은 게시판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낙서할 수 있는 대나무 숲이었다.

당시 개교준비팀과 공간혁신팀에서 활동한 한 교사는 "교실 환경은 그 자체가 바로 교육이다. 교단 없는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어깨를 마주하며 토론한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고 싶어 하고 즐거워하니 교사들도 힘이 난다고 강조했다. 학교 공간 전반에 퍼진 '활력'은 교사 연구모임으로도 이어져 수업의 질이 더욱 높아진다.

예전에는 높은 교탁, 교단이 교실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둘러앉아 있는 곳곳이 중심이 된 것이다. 배움의 공간을 수정·보완해나가며 아이들도 학교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게 된다.

아이들의 일상을 바꾸는 민주적인 공간

학교 공간 혁신 사례로 언급되는 나라에는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교육 선진국이 있다. 덴마크의 '외레스타드 김나지움(Ørestad Gymnasium)*'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꾸려가며 수업의 절반은 교실에서, 나머지 절반은 문이 없는 개방 공간에서 진행한다. 교사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며 아이들의 공간 자율성을 보장해준다. 노르웨이 '링스타베크 스콜레(Ringstabekk Skole)'의 경우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확 트인 개방형 공간을 학교라 부른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 지정된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는 수업 없는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홈 베이스' 공간이 있다. 설계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인테리어와 실내 구조부터 일반 교실과는 다르다.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소규모 즉석연주 등이 가능하고, 마루가 마련돼 있어 눕거나 편히 기댈 수도 있다. 스마트폰 충전을 위한 콘센트도 있다. 학교 속 '나만의 베이스캠프'로 활용 가능한 공간인 것이다. 이는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 지원을 받아 공간 혁신을 독려한 결과다.

미래 학교의 공간 혁신에 관해 많은 사람이 걱정한다. "학교 복도에 소파 놓고, 카페처럼 분위기 좋은 곳 만들어 주면 학업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거 아니야?"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일 뿐이다.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공간이 학교에 한 군데라도 있으면 아이들은 학교를 사랑하게 된다.

온종일 지내는 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바뀐다. 아이들도 학교를 '힘들게 다녀야 하는 곳'이 아닌 '살아가는 터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작은 차이가 학교라는 공간을 더욱 민주적으로 만든다. 아이들은 학교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된다. 필요와 욕구에 의해 유연하고 재미있게 변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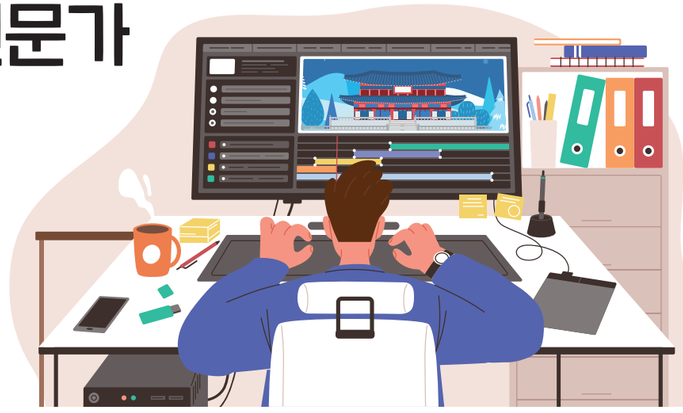
학교에서의 공간 혁신이란 단순히 노후화한 시설이나 교구를 교체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곳만 그럴싸하게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일상이 자연스레 스며들 수 있도록 수평적이고 열린, 민주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진짜 공간 혁신이다. ⓚ

*「The-K 매거진」 2019. 6월호 'The-K 리포트' 수록

제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로와 직업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잡(job)자」는 직업 교육 전문가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게 될 미래 사회의 직업들을 살펴보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마법사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인류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록'이다. 기술의 혁신은 문자로, 그림으로, 사진으로 기록되어 온 문화유산들을 디지털 데이터로 담아내고 구현될 수 있게 됐다. 이런 배경으로 떠오르는 직업이 바로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이다. 손상된 문화재를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같은 디지털 기술로 보존 및 복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문화 전문가이면서 첨단 미래 기술력을 구현하는 디지털 전문가이기도 하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매력적인 직업,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에 대해 소개한다.

글 한상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거를 눈 앞에 구현하는 디지털 문화유산

서울 한복판에서 곤돌라를 타고 운하의 도시 베네치아를 즐길 수 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해 랜선 여행을 즐기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난 것이다.

빨강, 초록, 파랑이 어우러진 단청이 돋보이는 돈의문(서대문)의 아름다움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일제에 의해 철거된 서울의 사대문 가운데 하나인 돈의문을 증강현실(AR) 기술로 재현했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이와 같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을 이용해 디지털 자료로 만든 문화재를 말한다.

인류의 지식과 표현의 역사 가운데는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많다. 디지털 자료 형태로 우리 문화유산을 변환해 관리하면 자료를 영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을뿐더러 많은 사람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북한에 있는 문화재나 해외에 있는 인류 문화유산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해두면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오래전 손실된 문화재도 디지털 정보로 되살릴 수 있는 것이 디지털 자료의 장점이다.

문화유산을 저장하는 디지털 자료는 디지털 텍스트, 사진 이미지, 음성, 동영상,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웹 페이지,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광범위하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디지털 자료의 종류와 그 범위는 앞으로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자산으로는 유물과 유적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만든 건조물·서적·회화·공예품 등은 영구 보존되어 많은 사람이 관람할 수 있다. 무형자산으로는 연극·음악·무용·공예 등이 있는데,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된 무형유산은 현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 또 디지털 문화유산은 사고로 소실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 정보가 될 수 있다. 화재로 소실되었던 숭례문의 경우 화재 이전에 3D 레이저 스캔으로 촬영했던 자료가 복원 시 요긴하게 사용되기도 했다.

인문학적 소양과 기술 과학에 대한 이해 필요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는 문화유산을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보존할 뿐 아니라 관리하는 일도 한다. 먼저 디지털로 기록하고 관리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선별한 뒤 보존할 디지털 방식을 정하고 3차원 스캔 등을 통해 실물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그런 다음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해 영상 파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디지털 헤리티지는 최근 생겨난 분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문화유산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문화 콘텐츠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역사학·공예학·인류학·고고학·문화재 보존학 등을 전공하면 문화유산에 관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 활용 측면에서는 컴퓨터공학·영상예술학·정보통신공학 등을 공부하면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가 되려면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증강현실,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인문학과 정보통신 기술이 함께 필요한 분야인 만큼 융합적 인재가 유리하다.

현재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문화재청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선별한 뒤 3D 데이터를 구축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신라 진흥왕순수비, 울주의 반구대 암각화 등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만날 수 있는 약 1,000건의 문화유산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이 데이터를 이용해 교육용 보조 자료나 관광 상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인테리어 생활 소품 등도 만들 수 있다.

메타버스의 기술적 발전으로 앞으로는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문화유산도 생산되고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혼합현실(MR)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혼합현실 기술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는 혼합현실 기술을 구현한 대표적인 매체다.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의 기술을 넘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본격적으로 결합하는 기술이다. 메타버스 문화유산 전시관에서 방문객은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아바타로 게임을 하듯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다. 메타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을 문화 콘텐츠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는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마법사나 다름없다. ⓚ

「꿈 너머 꿈」은 현업 활동과 더불어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 넘치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과학의 숲으로, 지혜의 봄으로

교육부 학교정책과 이승택 교육연구사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한 글자'를 가슴에 품고 산다.
어떤 이는 '돈'이나 '일'을, 누군가는 '벗'이나 '꿈'을 인생의 과제로 안고 지낸다.
지난 2월까지 과학 교사로 근무한 이승택 교육연구사에게 그 한 글자는 다름 아닌 '왜?'다.
과학 교사로서 학생들의 '왜'라는 호기심을 소중히 지켜주고자 그는 마음 맞는 교사들과 학습공동체를 꾸렸다.
탐구하는 과학 교사로서, 행정가로서 과학자 양성을 꿈꾸는 그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본다.

글 박미경 / 사진 이용기

※ 모든 인터뷰 및 사진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됐습니다.

생각할 거리를 찾는 교사학습공동체 '꺼리'

바쁜 나날을 보내는데도 기운이 넘친다. 교사에서 행정가로 보직을 바꾸느라 만만찮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이승택 교육연구사의 과학을 향한 애정과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뜨거워진다. 학교라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지금, 그는 '실천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활동해온 과학 교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교사 12명이 함께 모인 실천공동체는 과학 안에서 생각할 거리, 나눌 거리, 도전할 거리를 찾아내 함께 토론하고 과정을 탐구한다. 무언가 재미있게 연구할 '거리'들을 찾아보자고 의기투합한 공동체인 만큼 이름도 '꺼리'라고 지었다. 모임을 이끄는 리더로서 그리고 신참 행정가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연구사에게 모임에 대한 소개를 들어보았다.

"충남 지역 초·중·고 과학 교사를 모아 2017년부터 활동해왔어요.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과학 놀이를 꾸준히 찾고, 탐구할 가치가 있는 것에 관한 대화를 수시로 나눠요. 대중이 과학이라는 학문에 좀 더 쉽게 다가가도록 여러 책을 같이 집필하고 있어요."

공동체의 방향을 잡고 비전을 제시하느라 처음 3년간은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함께 쓰는 책들이, 같이 꾸는 꿈들이 서로를 더 좋은 교사로 만들어온 까닭이다.

교사학습공동체 '꺼리'는 현재 12명이 활동 중이다. 지난 1월에는 「누구나 탐구 : 날리기 과학」을 출간했다. 「누구나 탐구 : 악기 만들기」가 곧 발간될 예정이고, 대중의 환경 인식을 일깨우는 에세이도 올 상반기에 출판을 앞두고 있다.

"우리 교육은 지식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꾸준히 바뀌어왔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면서 다시 지식 중심 교육으로 후퇴 중입니다. 실천 과학교육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가정에서 온 가족이 놀이처럼 할 수 있는 실험을 발굴하는 거였어요. 그 결과물을 「누구나 탐구」 시리즈에 담았습니다."

과학 실험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 제작 활동 모습

더 큰 세상으로 가는 '과학적 사고'의 힘

그는 과학을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학문'이라 표현한다. '왜'라는 질문을 품고 천천히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과학이라는 것이다. 과학 지식 자체를 습득하기보다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그에겐 더 중요하다. 다양한 증거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이 틀리면 언제든 수정해나가는 궁리 체계. 더 많은 사람이 '과학적 사고'를 갖출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활발히 소통해나갈 생각이다.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모든 학문이 과학이에요. 사실과 생각은 달라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것인지, 자신이 생각해서 바라본 건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사고하는 것이 몸에 배면 가짜 뉴스 같은 것에 더는 휘둘리지 않게 되죠."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이 넘쳐나고 인간의 활동 범위가 '우주'로 확장되는 이 시대에 과학적 이론을 갖추었다는 것은 차별화된 능력이다. 인문계 인재를 뽑을 때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뽑는 일이 흔해졌다. IMF 직후 이공계 관련 회사가 줄줄이 도산하면서 자연계 기피 현상이 생겨나던 것과는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단지 유망하기 때문에 이공계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 분야의 인재가 되려면 자연을 직접 만나야 하고, 기후나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과학은 윤리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스스로 창조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이공계 안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으로 활동을 좁혀나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 종착지가 직업이에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데 일조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끄는 안내자로서의 삶

현재 그는 교육부 학교정책과에서 초·중·고교 입학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일을 하다보니 법률을 해석하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꽤 잦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아내 관련 정책이 입안되도록 하는 일은 어깨가 무거운 만큼 보람도 크다. 교육 현장에 몸담았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교사로서의 행복한 추억이 정말 많아요. 첫 부임지였던 충남 서산에서는 아이들과 해안가로 탐사 활동을 많이 다녔어요. 그곳의 사구 식물이 육지 식물과 어떻게 다른지도 조사하고, 모래사장을 기어 다니는 거미며 표범장지뱀의 모습도 관찰했죠. 같이 조개도 캐고 캠핑도 하면서요."

놀이인지 학습인지 구분이 안 되는 활동을 함께하면서 자연스레 과학 꿈나무들을 키워나갔다. 한 학급의 학생 수가 30명이면 각각의 특성이 모두 달랐다. 각기 다른 그 특성을 유심히 지켜본 뒤 한 명 한 명에게 따로 제안하곤 했다. "넌 이걸 한번 해보고, 넌 저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계획도 진행도 아이들이 직접 해나가게 했다. 스스로 주인이 된 아이들이 얼마나 눈부신지 그는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다.

"어려서부터 과학을 좋아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해답을 반드시 찾아야 직성이 풀렸죠.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을 다 뒤져보는 어린이였어요."

그런 유년을 보냈기 때문일까. 그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을 지켜주는 일이 교사로서 자신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늘 생각했다. 호기심을 잃을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아이들 스스로 도전하고 성취하게 하는 것. 자신은 다만 '안내자'임을 그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제 호기심과 아이들의 호기심이 만났을 때 그 시너지가 엄청나더라고요. '너 궁금해? 나도 궁금해. 그럼 우리 한번 탐구해볼까?' 그렇게 시작되는 일들의 결과는 정말 놀라워요."

과학 인재 길러내는 전문가를 꿈꾸다

교육부에 오기 전까지 7년간 몸담았던 천안 동성중학교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혁신학교였다. 사물인터넷과 레이저 조작기 등을 앞서 사용하는 선도적 학교이기도 했다. 그 학교에서 발명·특허·비즈쿨·창업·메이커 등 다양한 학생 동아리를 지도했다. 영재교육원 강사, 과학대회 심사위원, 이공계 진로 컨설턴트로도 활약했다. 그 모든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교육 분야 신지식인에 선정됐고, 2016년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MBL 실험 장치를 개발해 제62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2017년에는 올해의 과학 교사상을 수상했다. 도전과 성취의 나날이었다.

"과분한 경험을 꾸준히 쌓고 나니, 교사로서 품었던 목표들이 어느 정도 성취됐다 싶더라고요. 저의 전문성을 새로운 곳에서 발휘해보고 싶어, 지난 3월 교육부로 몸을 옮겼어요."

앞으로 과학교육 관련 제도 운용에 일조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그는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적 소양을 가진 시민으로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미래 인재들이 호기심을 잃지 않고 탐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길 바란다.

그 과정에는 과학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높은 현장 이해도가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퇴근 후엔 학생들의 과학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과 과학을 연결하는 책을 쓰고 있어요. 탐구할 것과 공부할 것이 있는 한 언제나 행복해요."

늘 탐구하는 자세로 교사에서 행정가로 변모한 그의 미래가 세계적인 과학 인재양성이라는 꿈의 실현으로 밝게 빛나길 기대해본다. Ⓚ

'꿈 너머 꿈'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꿈 너머 꿈'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담는 코너입니다. 회원님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꿈을 향해 쉼 없는 도전을 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The-K 매거진」이 회원님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생애주기 중 허리에 해당하는 연령대가 바로 4050세대입니다. 「고민 상담소」는 책임은 막중하나, 위로를 받기 어려운 4050세대들이 가진 가정·직장 내의 고민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부모 생활

코로나19로 비대면 가정학습이 늘면서 자녀들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갈등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문제 행동을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면 부모의 역할은 수렁에 빠지고 만다. 그렇다고 가만히 두고 볼 수도 없다. 자녀가 처한 상황과 아이의 성향, 시기와 방향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인 요소도 파악할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여기서부터다.

글 박재원 사람과교육연구소 소장

◈ 자랑스러운 자식이 '원수'가 된 사연

"정말 자식인지 '웬수'인지 모르겠어요!" 한때 공부 잘하는 자식 자랑에 바쁘던 엄마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이야. 지금은 누가 아이 얘기를 물어볼까 두려워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는 엄마와 마주 앉았다. 코로나19로 가정학습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문제를 호소하는 가정도 크게 늘고 있다.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매일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웬수'가 된 아이를 만났다. 하지만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시선, 너무나도 싫었던 부모가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 대신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느끼면 아이들은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사실은 조금 더 습득력이 빠른 공부 머리로 동네에서 승승장구하던 아이가 새로운 학군으로 이사 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친구들을 보고 겁을 먹은 것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패자가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될 수는 없다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도 자존심을 지키려면 예전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강해진 회피 본능 때문에 아이도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실망할 걸 아니까 저도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아이는 예전처럼 엄마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엄마에게 자주 칭찬을 듣던 때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게임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계속 이러면 안 된다고 중얼거린다고 했다. 하지만 게임을 할 때만 마음이 편해져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아이의 진심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부모를 만났다. 부모는 이사와 전학이라는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아이에게 미친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뒤 눈물을 흘렸다.

아이의 행동에 숨어 있던 상황적 요인을 이해하게 된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이는 더 힘들었겠네요." 비록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아이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부모와 아이의 진심이 만나면 대부분 해피 엔딩을 맺는다.

◈ 처음부터 문제 인간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행동은 문제가 없고 단지 상황이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문제 상황이 문제 행동을 유발하지만 정작 문제 상황은 숨어버리고 문제 행동만 남아 결국 문제 인간으로 몰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늘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 인간은 없다. 특히 부모가 아이를 문제 인간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행동만 문제 삼아 아이를 문제 인간으로 몰아가는 순간 부모 역할은 벼랑 끝에 선다. 상황을 살펴야 할 일인데 아이 탓을 하면 부모와 아이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는 곧 '생각은 어떻게 작동되는가'라는 부제가 달린 책 「마인드웨어」의 핵심 주장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에서, 심지어 사물의 움직임에서도 그 원인을 설명할 때 기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반면 상황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에 숨어 있는 '진짜 욕구'를 볼 줄 알아야 부모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시작된 자녀와의 전쟁

코로나19 사태는 삶의 무대, 일상적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가혹한 시험공부, 성적 경쟁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갖 욕구불만에 시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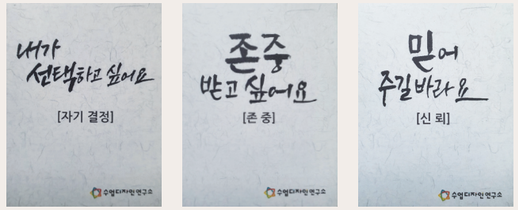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무리 짓기와 집단행동, 영역 싸움, 멋부리기, 의례적 과시 행동, 둥지 틀기 행동, 짝짓기 의식, 속임수, 사회계층 구조의 확립과 유지 등의 욕구(「뇌가 배우는 대로 가르치기」, 한국뇌기반교육연구소)가 대부분 코로나19 상황에 갇혀 좌절되고 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지금의 부모들이 학창 시절 학교 안팎에서 끼리끼리 모여 어울리면서 충족했던 욕구들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상황적 요인과 아이들의 좌절된 욕구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치에 맞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아이에게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해주자.

만약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면 상대가 처한 상황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일단 상대를 탓하기 시작하면 서로의 탓을 하게 되고, 관계가 망가져 버린다.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의 저자 마크 고울스톤은 인간의 뇌를 가장 원시적인 파충류(뱀)의 뇌, 중간층인 포유류(토끼)의 뇌, 가장 바깥층인 인간의 뇌, 이렇게 3가지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상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파충류의 뇌'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린 아이들은 점점 파충류의 뇌 상태로 변해가고,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부모의 문제도, 아이의 문제도 아니다. 부모도 원치 않고, 아이도 원치 않는 상황이 분명하다. 극심한 혼란,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모와 아이를 모두 파충류로 만드는 상황적 요인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욕구 카드]



(출처 : 수업디자인연구소 개발 제품)

'욕구 카드'를 구해 아이들의 욕구불만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자. 방학까지 겹쳐 욕구불만에 가득 찬 뱀의 뇌끼리 만나 힘겨운 가정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면 아이 앞에 욕구 카드를 펼쳐놓자. 아이가 고른 카드를 보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 그런 카드를 골랐는지 상황적 요인까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자. 부모는 아이가 얘기할 때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가 치밀어 올라도 참아야 한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인간의 뇌'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우면 때가 온다.

'1인 1닭'이 아니라 '1일 1욕구충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가정생활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파충류의 뇌'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동물적 욕구충족을 위해 아등바등하던 아이가 부모의 도움으로 욕구불만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의 뇌'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부모와 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

「인생 이모작」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제2의 삶을 알차게 설계하고, 행복을 찾는 퇴직 회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향 동요를 지킵니다

동요 지킴이 **이홍재 회원**

교사가 된 후로 그는 평생 오선지 위에서 살았다. 건반을 짚듯 아이들의 아픈 곳을 짚어주고, 음을 이어 멜로디를 만들 듯 아이들에게 길을 내어주며 살았다. 함께 목청껏 부르던 동요는 아이들과 교사를 잇는 끈이 되고, 추억이 되고, 고향이 되어 영원히 마음속에 살아 있다. 그렇게 평생 화음 속에서 살았더니 동요가 나이 들지 않듯 그도 만년 청춘이다.

글 이성미 / **사진** 이용기

동요가 내게로 왔다

"교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장 선생님이 '합창부를 지도해보라'라고 하셨어요. 거듭 부탁하시는 데 무심하게 굴 수 없으니 수락했죠.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선택이 제 운명을 완전히 바꾸리라고는 말이에요."

이홍재 회원과 음악의 첫 만남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홍재 회원은 1979년 광천 오서초등학교에서부터 2018년 홍성 서부초등학교까지 충남 지역에서 40여 년간 교직 생활을 했다.

어릴 적부터 셈에 밝았던 그는 수학 교육을 전공하고, 교사가 되자 '영재를 육성해야겠다'는 결심을 품었다. 그러나 운명은 이홍재 회원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바로 '합창'이었다. 합창이라고는 평생 교회 성가대 경험뿐이던 그에게 합창부 지도 업무가 맡겨진 것이었다. 육상부나 미술부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했지만, 합창부는 달랐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음을 찾아주고 나면 수십 명의 화음을 맞춰야 했다. 그렇다고 모른다며 대충 넘기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동료 교사들에게 묻고, 다른 학교에 견학도 가고, 교회 합창 세미나도 찾아가 열심히 배웠다.

결심이 서고 아는 것도 생겼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가르치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다. 50여 명의 학생이 들어갈 연습실이 없어 급식실 책상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연습을 했다. 여름날 뙤약볕 아래에서 연습할 때도 있었다. 같은 노래를 수백 번쯤 불렀을까? 사막에 꽃이 피었다. 처음에는 제음 찾기도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이홍재 회원의 지도 아래 점점 화음을 맞춰갔다. 그의 열정에 학부모들도 물심양면

이홍재 회원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작곡한 '시초면민의 노래' 기념비

힘을 보탰다. 합창 대회가 있다고 하면 벼 수매까지 뒤로 미루고 아이들 인솔을 도왔다. 그렇게 이홍재 회원의 노래는 학생, 어른의 마음을 가리지 않고 날아가 앉았다.

노래는 살아 있어야 한다

학교가 바뀌어도 지도는 계속됐다. 학교를 옮기면 합창부부터 결성하고 아이들을 모았다. 작곡에도 도전했다. 가만히 있어도 음표가 날아와 귀를 간지럽히는 듯해서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홍재 회원이 끄적이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알아서 "쉿!" 하고는 말소리를 줄였다. 그렇게 '홍성교육의 노래', '시초면민의 노래' 등 지역민을 위한 노래와 '이웃 속에 내가', '가을밤', '강마을' 등 동요 약 30곡이 탄생했다. 유치원 원가도 네 곡이나 만들었다. 특히 '가을밤'은 전국

새노래큰잔치에서 대상을 받고, '별꽃', '모두가 즐거워요', '우리 선생님', '무지개'는 충남교육감배 창작동요제에서 입상할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그에 힘입어 교사 연수, 도 교육청 송년 음악회 등 교육 관련 행사를 다니며 공연도 했다. 교사인 부인과 자녀도 악기를 배워 함께 무대에 섰다. 이홍재 회원은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그렇게 많은 아이가 그의 품 안에서 노래를 배우고, 행복을 배웠다.

노래가 영그는 동안 이홍재 회원도 나이를 먹었다. 교실 안에서 그는 세기가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많은 것이 발달했고, 많은 것이 사라졌다. 대체하면 안 되는 것이 대체되었다. 이홍재 회원에게는 음악 교육의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진다. 기억 속 풍금 치던 선생님의 모습은 지금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없다. 이홍재 회원에게 그 빈자리는 너무나 쓸쓸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그 쓸쓸함은 은퇴 이후에도 실음 교육에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제부턴가 교실에서 풍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를 컴퓨터가 대신하죠. 사람은 없고 기계는 있습니다. 저는 음악 교육의 위기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이름 '도'가 있죠? 세상 어디에도 똑같은 도는 없습니다. 어떤 악기를 어떤 연주자가 어떤 감정으로 연주하느냐에 따라 수만 가지의 '도'가 나와요. 그래서 실음 교육은 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아이가 컴퓨터가 들려주는, 감정 없는 한 가지 음악을 듣고 자라요. 거기에는 사람의 감정과 상상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교장이 되어서도 이홍재 회원은 살아 있는 음악을 가르쳤다. 점심시간이면 뜻이 있는 아이들을 교장실로 불렀다. 그러고는 함께 하모니카를 불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와 불화가 있는 아이들을 노래로 품었다. 정확한 음을 내라는 것이 아니었다. 하모니카를 멋들어지게 불라는 것도 아니었다. "속상할 때는 하모니카를 불어라", "원망스러울 때도 하모니카를 불어라", "나쁜 길이 보이거든 눈을 질끈 감고 하모니카를 불어라" 하며 기댈 곳을 마련해주려는 것이었다. 점점 실력이 향상되면서 아이들은 자존감을 되찾고,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채기가 났던 마음에 새살이 돋아나면서, 그 위로 새로운 꿈과 희망도 품게 되었다.

세대를 막론하고 동요는 마음의 고향

동요의 명맥을 잇기 위해 이홍재 회원은 퇴직 후에도 오선지 위를 걸었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다니며 하모니카 교실을 운영하고, 보령교육지원청 위탁 교육 '찾아가는 예술교육'의 일환으로 동요 콘서트도 열었다. 지난해에는 보령

지역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섬마을 학교를 대상으로 동요 교실을 운영했다. 충남 노인대학에서도 노래 교실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홍재 회원이 이처럼 밤낮으로 열정을 쏟는 이유는 동요가 '마음의 고향'이며 귀한 '문화유산'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홍재 회원은 "특히 전시동요(戰時童謠)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장르"라고 힘주어 말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도, 전쟁으로 온 땅이 재투성이가 된 와중에도 사람들은 동요를 불렀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힘으로 몸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켰다.

"몸의 고향이 땅에 있다면, 마음의 고향은 동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 때면 어릴 적 부르던 노래를 떠올리고 위안을 얻죠. 하지만 동요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기댈 데가 없으니 다시 일어서기 힘들고, 분노하고, 사람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요는 항상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해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교사들이, 더 많은 퇴직 교직원들이 동요를 널리 알리는 데 함께 힘써주는 것이다. 풍금이 다시 교실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음악이 존재하듯,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분명 살아갈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면 좋겠다. 그날까지 이홍재 회원은 기꺼이 계속 걸을 것이다. 마치 인생 2막의 악보 맨 앞에 도돌이표를 그려놓은 것처럼. ⓚ

'인생 이모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재능을 기부하며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의미 있는 인생 이모작을 실현하고 있는 회원님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 지면에 담아 많은 회원님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전해드리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방방곡곡 숨은 명소」에서는 여행이 간절하기만 요즘, 익숙하다고 생각한 여행지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는 숨은 명소와 식도락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합니다.

삼척 해안 일출 [사진 출처 : 삼척시청]

동해의 매력, 일출 명소 삼척

조선 선비의 동해안 기행은 늘 삼척에서 출발했다. 동해안이 보여주는 모든 매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삼척 죽서루는 관동팔경 중 제1경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2022년에도 삼척은 아주 매력적인 여행지다. 겨울에 추천하는 여행 코스 중 하나는 동해안을 따라 길게 늘어선 7번 국도를 달리는 것이다. 이 7번 국도 동해안 여행의 매력적인 기착지가 바로 삼척이다. KTX-이음(국내 기술로 만든 저탄소 친환경 준고속열차)이 동해역까지 연장돼 동해까지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삼척이나 울진은 아직도 '마음의 오지'로 남아 있는 곳이다.

대부분 사람은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달리다 동해안에 닿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다. 그러고는 강릉과 양양, 속초로 향한다. 오른쪽으로 꺾는다고 해도 정동진까지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조금 더 달리면 한적한 동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글/사진 고재열 여행 감독(어른의 여행클럽·트래블러스랩 총괄 감독) / **사진 제공** 삼척시청

고재열 작가는 20년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0년 9월 '재미로재미연구소'의 대표 여행자 겸 여행 감독이 되었다. 현재 여행자 플랫폼 '트래블러스랩'를 운영하며 다양한 여행과 소모임, 강의를 기획·진행하고 있다.

동해안의 바람을 마주하는 나릿골과 정라진항

지난겨울 방치된 삼척의 도시 재생 시설을 '삼척살롱'으로 만들었다. 직접 운영하는 '트래블러스랩'을 비롯해 사단법인 '점프'와 '녹색친구들' 세 단체가 이 공간을 함께 활용했는데, 이곳을 베이스캠프 삼아 삼척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삼척살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정라진항과 맞닿은 나릿골이다.

나릿골은 묵호의 논담길과는 다른 동해안 어촌 마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논담길이 잘 만들어진 관광지라면, 나릿골은 다듬어지지 않는 원석 같다. 어촌 출신이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관념적인 어촌 마을과 가장 닮았다. 바닷가 골짜기에 다랑논처럼 터를 잡은 일자형 집이 은근히 편안함을 준다.

나릿골에는 동해안을 가로지르는 해파랑길이 지난다. 나릿골 위쪽 산등성이는 나무가 별로 없는 구릉이라 시계가 좋다. 해돋이 때나 해 질 때나 모두 좋은데, 정라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 시작해 정라진 방파제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가 대체로 무난하다. 바다와 면한 곳에 핑크뮬리로 조성한 바람의 언덕은 운치가 있다. 마을을 두리번거리다 보면 작은 갤러리나 카페를 발견할 수 있다. '할매의 부엌'이라는 마을 식당도 있다.

나릿골 바람의 언덕을 비롯해 삼척은 해돋이 명소가 많다. 정라진항 이사부광장의 등대, 펜션이 몰려 있는 오분동 언덕 등은 새해 첫날 해맞이를 하려는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곳이 아니더라도 삼척 어디서든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체로 일몰 풍경도 뛰어나다.

나릿골과 삼척항 전경

장호항

덕봉산 해안생태탐방로

신남항의 일출 [사진 출처 : 삼척시청]

장호항에서 바위를 쓸어 담는 파도

긴 해안선이 늘어선 삼척에는 삼척해수욕장, 맹방명사십리, 초곡항-촛대바위길, 장호항, 삼척해상케이블카 등 바닷가 관광지가 많지만, 그중에서 한 곳을 추천하라면 단연 장호항이다. 장호항은 삼척의 바다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다. 바다에 솟은 우뚝한 바위에 부딪힌 파도가 부서지며 포말을 일으키는 모습이 장관이다.

장호항은 투명 카누나 스노클링 등 해양 액티비티 장소로 인기가 있는 곳이지만 여름 휴가철보다 겨울에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즐기는 바다가 아니라 지켜보는 바다로 더 매력적이다. 해안선을 따라 해금강을 축소해놓은 풍경이 펼쳐지는데, 파도가 바위를 쓸어 갔다 또 쓸어 담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된다.

삼척의 해안 중 삼척해수욕장은 가파르지 않고 모래가 고와 아이가 있는 가족이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다. 맹방해수욕장은 해송 사이로 난 산책로가 산뜻하다. 맹방명사'십리(10리: 4km)'라는 말처럼 백사장이 길어 드라이브 할 맛이 난다. 맹방해수욕장의 남쪽 끝단, 강 하구와 만나는 지점에서는 카누 체험도 가능하다. 요즘 유행하는 차박지로도 인기 있다. 삼척의 해안을 즐기는 방법의 하나는 동해안을 따라 난 해파랑길을 걷는 것이다. 삼척이 지닌 다양한 매력을 두루 느낄 수 있다.

삼척 활기 치유의 숲

삼척 활기 치유의 숲 물치유장

활기 치유의 숲에서 읽는 시간의 나이

삼척에 가서 숲을 본다?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활기 치유의 숲을 꼭 가보라. 활기 치유의 숲은 기억할 것은 기억할 수 있게,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은 쓸모 있게 잘 만들어져 있다. 아득한 화전민의 시간을 상상할 수 있도록 공병을 쌓아두었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더듬을 수 있는 구들과 담돌을 잘 간직했다. 시설도 깔끔하며, 현대적이면서도 이국적인 느낌이 든다.

삼척의 숲 중 한 곳을 더 추천하라면 소한계곡이다. 삼척 산악 지역은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져 침식된 계곡부가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는데, 소한계곡이 대표적이다. 이 계곡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민물김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다. 계곡 중앙부의 초당굴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삼척 번개시장(도깨비시장)에서 건져낸 활기

삼척의 어시장과 재래시장 중에서 꼭 권하는 곳이 있다. 번개시장(도깨비시장)이다. 참여할 수는 없지만, 새벽에 정라진항 위판장에서 경매를 구경하는 것만도 재미가 있다. 다른 도깨비시장처럼 위판장 근처에서 삼척 번개시장이 열리는데, 위판장에서 뗀 첫물 생선을 파는 곳으로 음식점 주방자과 부지런한 주부들이 이곳을 찾는다.

삼척 번개시장은 겨울에 특히 풍성하다. 일단 대게 '갈다리'를 살 수 있다. 갈다리란 다리가 한두 개 잘린 대게로, 가격도 저렴하다. 또, 청어나 꽁치 막회, 생미역과 채소를 넣은 회무침도 놓치면 후회할 메뉴다.

번개시장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저렴한 가격이다. 주머니가 가벼운 손님에게 성지와 같다. 골뱅이나 꽃새우도 안주로 훌륭하고, 물 좋은 오징어도 다른 곳에 비하면 저렴하다.

코로나19 이전 삼척 번개시장의 모습

삼척만의 독특한 음식 별미

매콤하고 도톰한 가오리찜과 새콤달콤 호박 막걸리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안마다 음식문화가 다르게 발달했다. 대체로 서해안은 매운탕이, 남해안은 숙성 회가, 동해안은 생선찜이 발달했다. 삼척 역시 생선찜이 잘 알려져 있는데 추천할 집은 삼척해물(033-574-6611)이다. 생선찜에는 가오리만 한 게 없다. 살집도 좋고 양념도 잘 어우러진다. 가오리찜은 강릉이나 속초 등 다른 동해안 도시에서도 인기다.

'생선 모둠찜'을 먹고 싶다면 삼척의 울릉도호박집(033-574-3920)을 추천한다. 도루묵이나 가자미가 두루 들어가 있고, 양념도 닭강정 양념처럼 달큼한 편이어서 아이들도 잘 먹는다. 이 집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문해 마셨다는 호박 막걸리도 유명하다.

물 맑은 오십천에서 잡아 몸보신에도 좋은 뚜구리탕

뚜구리는 삼척의 방언으로, 민물의 자갈 바닥이나 모래무지에 서식하는 동사리를 말한다. 태백산에서부터 흘러들어 삼척 시내를 관통하는 오십천 중하류에서 주로 서식하는 물고기이다. 몸길이가 6~10cm로 작으며, 2급수의 맑은 물에서만 산다고 한다. 삼척에서는 예로부터 이 뚜구리로 어탕이나 어죽을 끓여 먹었다. 고추장을 넣고 보글보글 끓여 만든 시원한 뚜구리탕은 늦봄에서 초여름의 별미 음식으로, 늦봄과 초여름에 삼척을 여행한다면 반드시 먹고 오길 추천한다.

출처: 디지털삼척문화대전

동해에서 맛보는 감칠맛 나는 문어숙회

서해안이 낙지라면 동해안은 문어다. 동해안에 간다면 문어를 제대로 먹고 와야 한다. 야들야들한 문어숙회에 술 한잔하고 싶은 여행자를 위한 추천 맛집은 맛과 향이 있는 집(033-575-0215)이다. 문어를 직접 고를 수 있으며 문어를 데쳐 내기 전에 굴을 듬뿍 넣어 주는 겉절이 김치는 별미 중 별미. 맛도 좋고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다. 문어라서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지만 동해안에 왔으니 과감하게 맛을 보는 것도 추천한다. 남은 문어로는 오징어 두루치기 대신 문어 두루치기를 해먹을 수도 있다. Ⓚ

국내외 사회·경제·문화 현상과 관련된 트렌드와 흐름을 핵심적인 키워드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해석해보는 시사 칼럼, 「키워드로 읽는 시사」입니다.

나와 지구를 위한 새로운 게임 체인저

신념이 소비가 되는 비거노믹스

v e g a n o m i c s

세계적으로 건강과 환경, 윤리적 가치에 중점을 둔 소비가 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동물 착취에 반대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채식주의를 실천하고 가죽 제품이나 양모, 오리 털, 동물 화학 실험에 반대하는 '비거니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했다. 국내 채식 인구도 10년 새 열 배가 늘었고,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거니즘의 실천은 관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제 비건 산업은 '비거노믹스'라는 이름으로 혁신적 문화 현상의 하나로써 설명되고 있다.

글 김고금평 머니투데이 기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라이프 스타일, 비거니즘

세계에서 가장 활발히 실천하는 채식주의자를 꼽으라면 비틀스의 폴 매카트니를 빼놓을 수 없다. 아내의 영향으로 채식주의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채식을 하자는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을 펼칠 정도로 채식 권유에 적극적이다. 심지어 동명의 곡도 발표했다.

여기엔 '채식을 통한 건강 유지'라는 기본 목적 이외에 동물 복지와 친환경이라는 비거니즘(Veganism) 본연의 가치와 철학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비거니즘은 채식의 가장 낮은 단계인 적극적 채식주의 이상의 의미가 담긴 셈이다. 동물을 착취해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거부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동물권을 옹호(윤리적 비거니즘)하고 지구 환경을 생각(환경적 비거니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환경과 기후 위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거니즘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계층의 까칠한 식단 정도로 보던 시각은 이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의 보편적 의무로 여기게 됐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에 관한 음모'를 공동 연출한 킵 안데르센은 "과거의 비거니즘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의 비거니즘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재해석한다"며 "비거니즘은 이제 소수의 극단적 가치관이 아닌, 나와 주변의 건강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MZ 세대가 쏘아 올린 비거니즘의 선한 영향력

비거니즘 열풍을 주도하는 이들은 MZ 세대(1981~2010년생)다. 이 '가치 소비' 세대는 상품의 질을 넘어 환경 또는 선한 영향력 등 그 상품이 지닌 가치에 주목한다. 환경오염 문제에 가장 민감한 20~30대가 비거니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채식이 환경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OWID)에 따르면 농·축산업은 인간이 발생시키는 이산화질소의 81%, 메탄의 44%, 이산화탄소의 13%를 차지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소와 양을 사육할 때 생긴다.

MZ세대를 중심으로 비건 인구가 늘면서 관련 산업도 종류를 가리지 않고 늘고 있다. 이른바 비거노믹스(Veganomics, 채식주의자의 'vegan'과 경제의 'economics'의 합성어)다.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 대전망 2019'를 통해 지난 2019년을 '비건의 해'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만큼 비건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전 세계 채식 인구는 1억8,000만 명이다. 그중 유제품을 비롯해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 비건 인구는 5,400만 명 정도다. 한국채식연합이 지난 8월 집계한 국내 비건 인구는 올해 250만 명으로 추산한다. 2008년 15만 명에서 지난해 200만 명으로 13배 이상 늘었고, 해마다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빅데이터 전문 매체 인사이트 코리아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채식을 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건강(63.1%) △윤리적 이유(52.9%) △환경보호(36.2%) △다이어트(26.3%) △체질(9.7%) 순으로 답했다.

주로 건강을 위해 시작하던 채식 문화가 이제는 동물·환경 보호 등 가치를 재조명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지표인 셈이다. 기업 역시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연스럽게 비거노믹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게 됐다.

주식시장을 사로잡은 비거노믹스

비거노믹스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산업 분야는 식품업계다. 식품 카테고리에서 무엇보다 주목받는 품목은 식물성 고기 '대체육' 시장이다. 미국 리서치업체 CFRA에 따르면 전 세계 대체육 시장은 2018년 약 22조 원에서 2030년 116조 원 규모로 약 427%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2019년 미국의 식물성 고기 제조업체 '비욘드 미트'(Beyond Meat)가 뉴욕 증시에 첫 선을 보였을 때 첫날 주가만 163% 상승, 시가 총액은 4조 4000억 원대를 기록해 그해 실적 공개 기업 중 최고치를 찍었다. 빌 게이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유명 인사들이 투자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지난 2016년 562억 원에 불과했던 식물성 단백질 기반 대체 식품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부터 연평균 15.7% 성장해 2026년에는 2,553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내 식품업계 중 이에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은 동원F&B다. 2019년 3월부터 비욘드 미트와 독점 계약을 맺어 대체육으로 만든 '비욘드 버거' 등을 판매했고, 롯데그룹은 통밀, 콩 추출 단백질 제품을 생산하는 대체육 브랜드 '제로 미트'를 선보였다. 제로 미트는 출시 1년 만에 판매량 6만 개를 돌파했다.

패션과 뷰티 분야도 앞다퉈 친환경에 나서고 있다. 업계는 단순히 화장품 성분뿐 아니라 친환경으로 제작하는, 이른바 '클린 뷰티' 열풍을 주도한다. 클린 뷰티를 위해서는 안전한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동물실험을 배제하고 친환경 포장재를 쓰는 것이 기본이다.

LF는 대기업 뷰티 브랜드 최초로 비건 화장품 브랜드 '아떼'를 론칭했고, 비건 인증을 받은 립스틱 '어센틱 립밤'은 출시 이후 여러 차례 품절 사태를 빚었다.

패션업계도 윤리적 소비와 친환경 소재 제품에 골몰하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 브랜드 빈폴은 재생 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패딩 제품을 내놓았고, 신세계 인터내셔날 역시 이탈리아 비건 패딩 브랜드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구찌나 프라다 같은 명품 브랜드는 모피 사용 중단을 발표했다. 그 외에도 맥주, 자동차 분야 등 다양한 산업군의 발걸음이 너나없이 비거노믹스를 향하고 있다.

이처럼 비거노믹스가 확대하는 추세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 비거노믹스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비건 식당은 서울시에 약 30곳이 있지만(한국채식협회), 메뉴당 평균 가격은 1만4,635원으로 이는 평균 외식 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대체육 시장과 관련해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어 시장 확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데도 비거노믹스는 향후 여러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 포스트」가 "채식주의는 단순히 '일시적 유행'이 아닌 우리의 미래"라고 말한 이유는 명확하다.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 나아가 우리가 살고있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지구 환경의 책임은 결국 우리 인류에게 있기 때문이다. ⓚ

키워드로 보는 2022년 경제 전망

LG경제연구원은 '국내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9%, 2022년은 2.8%로 전망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보면 IMF가 예상한 3.3%나 한국은행과 OECD가 전망한 3.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세계적으로 '일상으로의 복귀' 움직임이 시행된다면 서비스·소비 회복과 주택 건설 착공 등의 증가를 기대해볼 만하다. 결국, 변수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될 것이다. 과연 2022년 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2022년 경제를 가늠할 키워드를 짚어보자.

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콜로라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국내외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분석해왔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의 뉴스, 대담, 토론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와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제로 이코노미」라는 책을 발간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과 소비에 차질을 빚고 물가 상승을 초래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현상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이를 유발한 요인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큰 '일시적 요인'과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거나 도리어 심화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 병존한다.

일시적 요인으로는 수요 측면에서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여력 향상, 가계의 이연 소비 및 보복 소비, 계절적 연말 소비 및 겨울철 난방 수요 등을 들 수 있으며, 생산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동남아 등 글로벌 생산기지 국가의 생산 차질,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물류 병목 현상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력 부족이다. 코로나19로 직장을 떠났던 근로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하락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기보다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모습이다. 보건 위협 증가 속에 고령층의 조기 은퇴가 급증하고, 학교가 폐쇄된 상황에서 보육 부담으로 노동자들이 이탈했다. 국경 폐쇄 및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해외 노동력 축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로봇 등을 활용한 저임금 노동력의 대체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둘째, 친환경 정책 및 기후변화다. 미국 정부의 전통 에너지 지원 축소에 따른 공급 위축, 장기적인 재정 악화를 예상한 중동 산유국들의 감산 기조가 고유가를 지속시키고 있다. 친환경 발전 비중이 높아졌지만 빈번한 기상이변 등으로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이 증가했다. 에너지 중 천연가스의 중요도가 높아진 가운데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도 높다.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 생산 차질도 예상된다. 친환경 기조 강화는 특히 비철금속 공급의 불안정 요인이다.

셋째,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이다. 밸류 체인이란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기까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유기적인 '가치 사슬'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중 G2의 패권 경쟁, 핵심 물품에 대한 자국 공급망 확충 움직임, 주요 원료·부품·생산 장비에 대한 국가 간 확보 경쟁이 심해지면서 서로를 연결하고 있던 사슬은 약해졌고, 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이 중국에서 인도, 베트남 등으로 순조롭게 이전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넷째, 인프라 부족이다. 미국의 물류 대란 과정에서 확인된 물류 인프라 부족 및 개선에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운 선박 수주가 늘었지만, 실제 공급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재고를 유지하던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으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시간과 투자가 요구된다.

위드 코로나

델타 변이가 급격히 확산한 2021년 중반, 백신 완전 접종률은 선진국의 경우 30~40%에 달했지만, 주요 신흥국은 10%대에 불과했다. 그 결과, 선진국은 확진자 수 증가 속에서도 경제 봉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할 수 있었지만, 신흥국은 경제 봉쇄로 대응하면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 결과, 글로벌 수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글로벌 생산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이 지체되었다. 미국, 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확대도 가계의 구매력을 높이며 수요를 더욱 늘렸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농산물, 공산품의 산지이자 생산기지였던 신흥국들의 경제활동 차질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초래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회복 속도 차이는 비용 상승 및 공급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을 유발했다.

2022년에는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도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백신의 추가 보급으로 선진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백신 보급률에 도달하는 신흥국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오미크론 등의 변이 바이러스나 신흥국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가 변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인적 피해보다 경제 봉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중시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정부의 현금성 코로나19 지원 정책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이연 소비 및 보복 소비로 인한 내구재 중심의 제품 수요 급증 현상도 점차 진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측한다.

선거와 정책 불확실성

2022년은 주요국들의 선거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할 듯하다. 미국의 경우 2022년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에 주목해야 한다. 취임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재정지출 확대 및 증세안을 추진하던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 철군, 재정정책 표류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가능성은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바이든이 원하는 재정지출 확대를 공화당이 굳이 동의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다면 규제, 국가부채, 세금 등 많은 정책 이슈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

유럽의 경우 이미 총선을 치른 독일뿐 아니라 2022년 4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프랑스를 눈여겨봐야 한다.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사민당은 친유럽연합(EU) 성향을 띠고 있지만 기민당에 비해 좌파 성향이 강하다. 그로 인해 최근 EU와 갈등을 빚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등 국가의 우파 정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등 EU 내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중 갈등과 미·러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프랑스가 향후 어떤 대외 노선을 택하느냐에 따라 유럽이 미국 중심으로 뭉치느냐, 분열하느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22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와 이에 따라 결정될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부동산 관련 정책, 정부 재정지출 및 조세정책, 기업 관련 정책 등이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내다본다. Ⓚ

「건강한 집밥」은 냉장고에 있는 일상적인 재료와 제철 식재료만으로도 특별한 한 끼 상차림을 만들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요리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한 살 더 먹은 기념으로 새해 첫날 먹는 특별식
개성 있는 고명으로 특색을 살린 지역별 떡국 요리법

새해 첫날이면 아침상에 어김없이 올라오는 음식이 있다. 바로 떡국. 우리 선조들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떡이라고 해서 '첨세병(添歲餠)'이라고도 불렀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어린 아이들 중에는 떡국을 두 그릇씩 먹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새해에 떡국을 먹었을까? 떡국의 유래와 함께 다양한 떡국 요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글 편집실 / 사진 쿠켄

새해 첫날 첫 음식, 떡국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설날 첫 음식으로 떡국을 먹었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

육당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朝鮮常識門答)」에서는 "우리 민족이 설날에 떡국을 먹는 풍속은 상고시대 이래 신년 제사 때 먹던 음복 음식에서 유래했다"라고 전한다. 과거 문헌에서도 설날 차례상에 떡국을 올리고 음복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왕실과 양반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금의 떡국과는 모습이 사뭇 차이가 있는데, 오늘날 떡국과 유사한 모습은 18~19세기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경도잡지」 등에 소개되어 있다.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겉모양이 하얀 가래떡을 넣고 끓인 탕'이라 하여 '백탕' 또는 '병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옛사람들은 병탕을 몇 그릇 먹었는지 물으며 은유적으로 상대의 나이를 묻기도 했다. '떡국을 먹으면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말 역시 이 책이 편찬된 조선 후기 즈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장수와 풍요를 기원하는 새해 떡국

떡국은 맑은 육수에 흰 가래떡을 가늘게 썰어 넣고 끓여 먹는 음식인데, 그 위에 볶은 소고기나 지단 등 고명을 올려 맛과 모양을 더한다. 가래떡은 장수를 기원하고 새해를 밝게 보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가래떡의 흰색은 청결함을 뜻하기도 하는데, 지난해 좋지 않았던 일은 씻어버리고 새해에는 새롭게 시작하자는 의미다. 또 가래떡을 가늘게 썬 이유는 엽전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한 해 동안 재화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떡국을 먹었다.

지역마다 다른 다채로운 떡국 요리법

떡국은 떡의 모양과 국물, 얹는 음식에 따라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만두를 넣어 먹는 떡국은 강원도식이다. 국물이 진한 사골 육수에 떡과 소가 듬뿍 든 만두를 넣어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낸다. 강릉 지역에서는 황태 살을 고명으로 얹기도 한다.

충청남도는 지역 특산물인 구기자를 넣어 만든 가래떡으로 떡국을 끓인다. 단백질과 섬유질은 물론 비타민과 칼슘 함량이 풍부한 구기자는 영양 면에서도 탁월하며 진한 노란빛을 띠어 보기에도 좋다.

전라도는 닭으로 육수를 내 떡국을 끓이는 것이 특징이다. 닭 육수의 담백함이 일품이다. 여기에 북부 지역은 두부를 납작하게 썰어 넣어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내고, 남부 지역은 간장에 졸인 닭고기를 고명으로 얹어 짭조름한 맛을 더하기도 한다.

경상도는 태양처럼 동그랗게 떡을 썰어 넣는 '태양 떡국'을 먹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통영 주변의 남부 지역에서는 특별한 육수 없이 매생이와 굴만을 넣어 시원하게 끓여 먹기도 한다.

매년 똑같은 요리법으로 끓인 떡국이 지겹다면, 올해 설에는 마음에 드는 개성 만점 지역별 떡국 요리법으로 특별한 떡국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

강원 황태떡국

황태는 추운 겨울 찬 바람을 맞으며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말린 명태를 말한다. 밥상에 오르기까지 서른세 번 손이 가야 맛이 좋다는 황태를 떡국에 넣어보자.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특히 간 건강에 좋아 연말연시 과음한 이들에게는 해장 음식으로도 그만이다.

- **주재료** 황태 채 50g, 떡국 떡 300g
- **부재료** 멸치 육수 700ml, 대파 1/2대, 달걀 1개
- **양념/소스** 다진 마늘 1작은술, 액젓 약간, 들기름 약간

* 들기름으로 황태를 볶은 다음 액젓으로 간하면 국물 맛이 더욱더 진해진다.
* 기호에 따라 참기름과 소금으로 대체해도 된다.

* 만드는 방법

❶ 떡국 떡은 물에 헹궈 준비하고, 황태는 물에 불려둔다.

❷ 달걀은 고명을 부쳐 모양을 내고,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 준비한다.

❸ 불린 황태 채를 들기름에 볶다가 멸치 육수와 황태 불린 물을 넣고 끓인다.

❹ 육수가 끓어오르면 떡과 다진 마늘을 넣는다.

❺ 액젓으로 간하고, 다진 대파와 달걀지단을 올려 낸다.

남해안 매생이굴떡국

매생이는 저열량,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떡국에 매생이를 넣고 끓이면 칼로리 걱정 없이 영양 만점 특식을 맛볼 수 있다. 여기에 겨울철 별미인 굴을 더하면 더욱 담백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 **주재료** 가래떡 2줄, 매생이 1팩, 굴 1봉지
- **부재료** 홍고추 1/2개
- **양념/소스** 국간장 1작은술, 소금 1작은술, 후추 약간

* 경상도 지역의 특색을 살려 동그란 모양으로 가래떡을 썰어 태양떡국을 만들어보자.

*** 만드는 방법**

❶ 가래떡은 먹기 좋은 크기로 동그랗게 썰어 준비한다.

❷ 냄비에 물 8컵과 매생이, 굴을 넣고 끓인다.

❸ ②에 떡을 넣어 끓이다가 소금과 후추로 간한다.

❹ ③을 그릇에 담고 송송 썬 홍고추를 고명으로 얹어 완성한다.

전북 닭장떡국

전라도의 향토음식인 닭장은 닭고기로 만든 장조림이라고 할 수 있다. 감칠맛이 일품인 닭장 하나면 설날 떡국도 뚝딱이다.

- **주재료** 닭고기 반 마리, 떡국 떡 200g
- **부재료** 표고버섯 1개, 대파 1/2대, 무 100g, 통후추 10알, 생강 1톨
- **양념/소스** 깨소금 1작은술, 국간장 1/3컵

* 떡국 떡은 국물이 끓을 때 넣어야 쫄깃하다.

*** 만드는 방법**

❶ 냄비에 물 5컵을 붓고 닭, 대파, 생강, 통후추, 무를 넣어 푹 끓인 뒤 체에 걸러 육수를 낸다.

❷ 닭고기는 따로 건져 살을 바르고, 무도 건져 따로 둔다.

❸ 냄비에 육수와 닭고기 살을 넣고 국간장으로 간한 뒤 졸인다.

❹ ③에 물을 넣고 끓이다 떡과 무, 표고버섯을 넣고 다시 끓인다.

❺ 떡이 떠오르면 어슷썰기한 대파를 넣어 살짝 끓인 뒤 그릇에 담는다.

❻ 깨소금을 뿌리고, 닭고기를 고명으로 올려낸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의 시작이 바로 재활용입니다. 「DIY 리사이클링」 코너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집에서 직접 따라 해볼 수 있는 활용법도 꼼꼼히 알려드립니다.

의류 폐기물의 불편한 진실

패스트 패션이 가져온 재앙, 전체 의류의 85% 폐기

오래 입고 고쳐 입고 나눠 입는 슬로 패션 실천하기

우리가 매일 입고 생활하는 의류는 전체 생활비의 중요한 지출 품목입니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세계적 인기를 얻으면서 옷의 수명 주기가 더 짧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버려지는 의류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율은 극히 일부라는 점입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생산된 직물의 85%가 버려지고 있으며, 1초에 트럭 한 대 분량의 의류 폐기물이 태워지거나 매립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온난화를 불러오는 치명적인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매립지에 묻힌 옷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유독가스를 배출합니다. 결국 쓰레기로 버려진 의류 폐기물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번 호에서는 낡거나 입지 않는 옷을 버리는 대신 인테리어 소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방법을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의류 재활용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글 허나리 패션 스타일리스트

패스트 패션이 가져온 의류 폐기물의 실체

트렌디한 의류를 짧은 주기로 생산·판매하는 패션 산업을 패스트푸드(즉석식)에 빗대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스파(Speciality retailer of Private label Apparel, SPA) 브랜드가 주류로 떠오르면서 이런 소비문화가 급부상했고,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실어 나르면서 패스트 패션은 하나의 문화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밖에 입지 않은 옷을 쉽게 버리고 충동적으로 새것을 구매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서 결국 옷장에서 퇴출당한 옷은 의류 수거함이나 종량제 봉투에 담겨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스파 브랜드에서는 한 해 800억 벌 이상의 옷을 생산하고, 그중 전체 직물의 85%가 쓰레기로 버려진다고 합니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서 생활 폐기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의류와 원단류의 양은 6만7,514t에 달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버리는 의류 폐기물까지 합치면 폐의류의 양은 더욱더 많아집니다. 버려진 옷은 수거업자를 통해 재판매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지만, 상당량은 다시 쓰레기로 분류되어 소각됩니다. 쓰레기로 버려진 폐의류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매립지에 묻힌 옷은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 유독가스를 배출하고, 또 옷을 소각하면 지구온난화를 가속하는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폐의류 중 상당수는 합성섬유로 흔히 알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며, 동물보호를 위해 천연 모피 대신 활용하는 페이크 퍼(fake fur)는 에코 퍼(eco fur)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실상은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탄소배출·폐수·대기오염의 주범, 섬유산업

프랑스 자연환경연합이 '섬유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류 폐기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항공기와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섬유 생산 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쓰이고 의류 유통 과정에서도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합니다. 세계적으로 의류 생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탄소량이 연간 33억t에 달하는데, 이는 EU 27개국 전체 탄소 배출량인 35억t과 맞먹는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섬유 공장에서 원단 가공 시 발생하는 폐수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단 가공업체가 밀집한 방글라데시에서는 연간 2만2,000t의 독성 폐수가 버려지는데, 방글라데시 강물 색을 보면 어떤 색상의 옷이 유행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위협적인 현실은 납·수은·비소 등 극도로 해로운 물질을 포함한 폐수가 수로를 따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로 패션으로 실천하는 윤리 소비

슬로 패션은 패스트 패션과 반대 개념으로 옷의 과잉 생산과 소비 속도를 늦춰 윤리적 패션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등장했습니다. 기업이 마케팅 요소로만 친환경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을 실천하는 기업을 찾아 구매하려는 의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는 무조건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꼭 필요한 옷을 구매하고, 공정한 거래를 지향하며, 가지고 있는 옷을 오랫동안 입으려는 작은 실천입니다. 낡은 옷은 다양한 패브릭 소품으로 리폼하거나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공유하는 방법 등으로 옷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섬유산업의 또 다른 고질적 문제는 바로 '인권'입니다. 우리는 오랜 근로 시간, 저임금, 위험한 근로 환경 등 비인륜적 노동력 착취를 배경으로 유지되는 패션 산업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어린이가 의류 제조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한 윤리적 패션에 관해 관심을 갖고 실천하려는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의류를 재활용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니트 쿠션 커버

❶ 재활용할 니트 위에 쿠션을 올려 사방에 시접 여유분을 두고 시침 핀으로 표시해줍니다

❷ 시침 핀을 따라 니트를 가위로 자른 후 쿠션을 넣을 입구를 만들기 위해 자른 니트 양면 중 한쪽 면을 반으로 한 번 더 잘라줍니다.

❸ 니트를 뒤집은 후 자른 단면의 올이 나가지 않도록 테두리에 양면 테이프를 붙인 후 테이프 선을 따라 박음질을 해줍니다.

❹ 테이프를 떼어내고 올이 풀리지 않도록 전체를 바느질한 후 니트를 앞면으로 뒤집고 단추를 달아 장식합니다.

복주머니

❶ 복주머니를 도안 삼아 셔츠 위에 패턴을 그린 후 시접 여유분을 두고 재단해줍니다.

❷ 겉면이 안쪽으로 가도록 양쪽 원단을 시침 핀으로 고정한 후 윗면 입구 쪽을 제외하고 전체를 바느질합니다.

❸ 다시 겉면으로 뒤집은 주머니에 향이 나는 포푸리*를 넣어줍니다. 윗면을 주름잡아 고정하고 매듭 장식과 고리, 브로치를 달아 마무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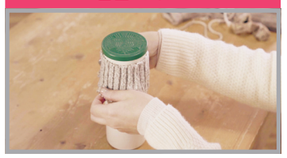
*포푸리(potpourri)는 자연적인 향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조한 식물성 재료의 혼합물을 말합니다.

니트 워머

❶ 니트 소매를 원하는 길이만큼 자른 후 아랫단을 실로 감아 고정합니다.

❷ 유리병에 간단하게 씌우고 레이스를 병 입구에 둘러 포인트를 줍니다.

텀블러 워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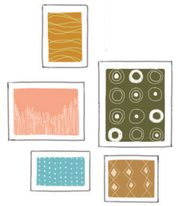
니트의 소매 윗단을 잘라 올이 나가지 않게 바느질을 해주면 텀블러 워머로 활용 가능합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입지 않는 니트와 셔츠를 활용해 쿠션커버, 복주머니, 텀블러 워머 등 다양한 인테리어 소품 만드는 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의류를 재활용해 만든 인테리어 소품

환경을 보호하는 니트 페인팅 액자

재활용 의류의 원단을 캔버스로 활용한다면 의외로 멋진 예술 작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펀지와 물감만으로 아이들과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새로운 창작 활동을 시도하고 환경도 보호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액자 크기에 맞게 자른 원단을 액자 틀에 고정합니다.

액자 가운데 스텐실 도안을 올려 완성될 그림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스펀지에 원하는 색상의 아크릴물감을 묻혀 톡톡 두들겨 색채를 입히고 스텐실 도안을 제거한 후 물감이 마르기만 하면 그림 액자가 완성됩니다.

2021년 한국교직원공제회 제111회 대의원회 개최

“50년 신뢰와 경험으로 2022년 회원 중심 경영을 준비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1월 25일, The-K 타워에서 제111회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대의원회는 The-K호텔경주에서 개최된 2019년 11월 제110회 대의원회 개최 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진 현장 개최로,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경영전략기획실장 등 관계 임직원 및 대의원 56명이 참석했으며, 2021년도 공제회 주요 경영현황·2022년도 감사계획보고,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어 대의원들의 질의·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자리였습니다. 최근 2년여 간 코로나19의 심각성으로 인해 서면결의 또는 지역별 간담회 방식으로 개최해 왔으며, 지난 2~3월에는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역밀착경영의 일환으로 회원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별 대의원 간담회를 총 11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111회 대의원회 현장의 이야기를 전국의 더 많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The-K 매거진」을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2022년 자산 규모, 회원 수 확대 전망

공제회는 ‘신뢰받는 금융·복지 서비스로 교육 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합니다’ 라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 주요사업계획, 사업별 예산안 등을 종합하여 「2022년도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도 총 자산은 약 56조 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며, 이는 2021년 말 추정 자산실적 52조 원 대비 약 4조 5천억 원(8.7%)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2022년도 공제회 총 회원 수는 약 89만 6천여 명**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2021년 말 추정 회원 수 87만 3천여 명 대비 약 2만 3천명(2.6%) 증가한 규모입니다. 한편, 친환경·신성장 동력발굴을 위한 투자확대에 기인하여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긍정적인 시장 전망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산별 구성안이 편성되었으며 2022년 자산 배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금융투자 부문으로, 전체 자산의 약 32.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자산 운용 규모로는 **▲금융투자 181,445억 원(32.1%) ▲대체투자 167,581억 원(29.7%) ▲기업금융 100,974억 원(17.9%)**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의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공제회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일반회원 78명, 특별회원 4명, 총 8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관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업·결산보고서 등을 의결합니다. 2020년 11월 1일 제22대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2023년 10월 31일까지 3년 임기 중에 있습니다.

눈여겨 볼 2022년 한국교직원공제회 주요 사업

1 디지털 워크 환경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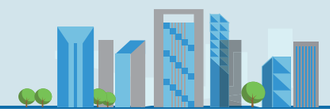
코로나19 장기화 등 급변하는 업무 환경에 대응하고자 비대면·디지털 워크 환경 고도화를 위해 업무 생산성을 혁신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RPA(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스마트 보고 시스템 구축, 신규 디지털 워크 관련 혁신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으로 더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ESG 경영 사회공헌사업 강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의 중요성 확대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본회 사회공헌 전략 체계에 부합하는 건강한 교실 만들기, 미래세대 자신감 증진, 취약계층 자립지원 등 ‘교육 현장 지원’ 및 ‘교육 기회 나눔’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 전국 지방회관 중·장기 운영 방안 수립

지방회관별 임대 현황 및 회관 가치를 종합 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자 전문 컨설팅을 실시, 재건축·사업 재구조화·매각 등 다각적 검토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운영 방향 도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4 모바일 APP 구축 돌입

금융 서비스의 온라인·비대면화가 가속화하면서 모바일 앱 필요성이 높아지게 된 점을 감안, 회원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바일 앱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입 및 청구 단계가 간소화될 예정이며,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로 대여 신청, 증명서 발급, 이벤트 푸시 알림 등 이용 기능을 확대하여 내방하지 않고도 간편하고 안전하게 여러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보편적 복지서비스 정착과 회원 복리 증진 사업 확대, 20년 이상 장기저축급여 가입 유지 회원님을 위한 신규 복지제도 시행, 장기저축급여금 및 대여 이율 관련,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한 유능한 전문 인재 확보, 공제회 조직 및 회원 규모의 안정성 유지 대응책, 출자회사 경영 현안 점검 등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고도화된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를 바탕으로 외형적 성장에 걸맞은 내실 경영을 추구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2022년에도 경영목표 달성은 물론 전국 교육 가족에게 더 큰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제회는 매년 대의원회, 제도분과위원회 및 예결산분과위원회 등 회원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이번 대의원회는 지난 50년의 경험과 역량을 발판 삼아 행복한 미래 50년을 만들어나가겠다는 다짐, 결의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최상의 회원 만족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로 행복한 동행, 최고의 금융·복지 파트너로서 함께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The-K 행복서비스 연간 시즌별 모음집

2022년, 일상의 모든 순간이 더 행복해지는 마법

The-K 행복서비스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님들의 삶에 특별한 행복을 드리는 공제회 생활·문화 복지서비스 브랜드로 '일상의 모든 순간이 더 행복해지도록'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예술·스포츠 등 오직 회원님만을 위한 고품격 문화복지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처음의 기쁨과 설렘이 평생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회원 여러분과 함께한 문화복지 행사, The-K 행복서비스의 2022년 일정을 미리 한 번에, 한눈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희망찬 시작

1월

북&JOY 도서 증정 이벤트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찾아오는
베스트 · 스테디 셀러,
테마 도서!

생활복지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공제회 제휴시설 만족도를
알려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2월

북&JOY 도서 증정 이벤트

회원님께서 읽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골라보세요.

장기저축급여 온라인 청구 이벤트

퇴직급여금 청구,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문화복지서비스
온라인 회원 패널 모집**

회원님께 듣습니다, 회원님께 묻습니다!

3월

북&JOY 도서 증정 이벤트

나만의 베스트셀러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씨네&JOY 영화예매권 증정 행사

영화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리세요.

The-K 은빛동행 유람선 주유권 증정

특별회원님께 즐거운 여가를 선사합니다.

전용콘도 할인권 증정 행사

공제회 전용 콘도를 할인가로 이용하세요.

뜨거운 여름, 시원한 힐링

4월

북&JOY 도서 증정 이벤트

매월 읽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도서 증정 이벤트!

**장기저축급여
신규 가입 회원 이벤트**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스승의 날 행사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존경을 표합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행복나들이

전국 각지, 소외 지역 학교에
직접 찾아갑니다.

컬쳐&JOY 지역별 맞춤형 문화행사

전국에 계시는 회원님과 함께합니다.

5월

북&JOY 도서 증정 이벤트

베스트 · 스테디 셀러와 함께
마음의 양식을 쌓아요!

아트&JOY 티켓·키트 증정 행사

전국의 핫한 전시회와 체험 키트를 만나보세요.

The-K 온라인 이벤트 행사

회원님의 문화 · 취미 · 여가 취향을
꼭 맞춰 찾아옵니다.

스포츠&JOY 모바일 상품권 증정 행사

즐거운 스포츠 활동과 경품 증정을 동시에!

**The-K 은빛동행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

특별회원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6월

북&JOY 도서 증정 이벤트

책장을 넘기며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세요.

씨네&JOY 영화예매권 증정 행사

회원님만을 위한 영화 관람 혜택을 드립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 이벤트

CCM 관련 퀴즈와 함께 찾아온
즐거운 경품 당첨의 시간!

장기저축급여 온라인 청구 이벤트

퇴직급여금 청구,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퇴직예정회원 대상 이벤트

공제회와 함께, 든든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하세요!

아름다운 계절, 가을의 풍요로움

7월

북&JOY 도서 증정 이벤트

책을 읽으며 나에게로 떠나보는
상상의 여행!

8월

북&JOY 도서 증정 이벤트

책과 함께 어제보다 나은 일상을 꿈꿔보세요.

장기저축급여 온라인 홍보 이벤트

일반회원님을 위한 특별 기획 홍보 이벤트!

장기저축급여 온라인 청구 이벤트

퇴직급여금 청구,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씨네&JOY 영화예매권 증정 행사

영화로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9월

북&JOY 도서 증정 이벤트

일상에 마음의 양식을 한가득 채워보세요.

대학병원 이벤트

코로나19 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과 회원님을 위해 찾아갑니다.

**The-K 은빛동행
코레일 기차 여행**

많은 사랑을 받은
기차 여행이 돌아옵니다!

The-K 뉴스레터 구독 이벤트

오직 회원님만을 위한 이메일 소식지,
열어보시고 혜택도 누리세요!

특별한 겨울, 새로운 결심의 시작

10월

북&JOY 도서 증정 이벤트

즐겁고 유익한 독서로
일상을 풍성하게 보내세요.

장기저축급여 신규 가입 이벤트

공제회와 인연을 맺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퇴직예정회원 대상 이벤트

공제회와 함께하는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준비!

씨네&JOY 영화예매권 증정 행사

영화·극장·시간을 원하는 대로, 맞춤형 혜택!

11월

북&JOY 도서 증정 이벤트

책과 교감하며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보세요.

아트&JOY 티켓·키트 증정 행사

다양한 전시와 키트로
교양과 체험을 한 번에!

The-K 온라인 이벤트 행사

더 즐겁게 취미 · 여가를
누리실 수 있도록!

12월

장기저축급여 온라인 청구 이벤트

퇴직급여금 청구,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The-K 은빛동행
모바일 상품권 증정**

공제회와 함께 기분 좋은 한 해를
마무리해보세요!

※ 상기 행사 및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행사별 참여 방법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사항 및 행사 참여 방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The-K 행복서비스' 이벤트 페이지 참조.
※ 본 일정표는 응모일 기준이며,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변경·조정·취소될 수 있습니다.

The-K 행복서비스로 회원님의 일상을 더 행복하게, 오늘을 더 소중하게!

행복한 일상에 특별한 순간을 더하기 위해 마련된 평생 복지 혜택 중 하나인 The-K 행복서비스! 일정표에 소개해드린 행사 외에도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 회원 초청 행사인 문화라운지, 제휴 시설 숙박권 증정 이벤트 등 더 흥미롭고, 더 다채로운 각종 행사도 준비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이 더 큰 만족과 감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을 더 소중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회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트렌드를 발 빠르게 반영해 점점 발전해온 The-K 행복서비스, 2022년에도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진심으로 준비한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 다양한 문화 혜택을 빠짐없이 누려보세요. 회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공제회 새.롭.게 달라지는 것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님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퇴직 후 건강하고 든든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제도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대여, 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상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The-K 행복서비스'는 매년 더욱 더 다채롭고 새로운 모습으로 회원님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The-K 매거진」을 통해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각종 제도·보험·복지 주요 혜택을 안내해드립니다. 오직 회원님만을 위해 마련한 맞춤 서비스로 2022년을 풍성하고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저축

"2월 1일, 목돈급여 및 퇴직생활급여 상한 구좌 수가 확대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 목돈급여와 퇴직생활급여 구좌 수 상향에 대해 꾸준히 건의해주신 회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2022년 2월 1일부터 목돈급여 및 퇴직생활급여 최고 한도를 상향합니다.**

재직회원님의 여유자금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드리는 **목돈급여는 현행 100구좌(1억 원)에서 300구좌(3억 원)로 상한 구좌 수를 확대**하며, 부가금형과 예탁형을 합산할 때 최대 300구좌(3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회원님의 은퇴자금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드리는 **퇴직생활급여는 60구좌(3억 원)에서 100구좌(5억 원)로 상한 구좌 수를 확대**하며, 부가금형과 확정연금형을 합산해 최대 5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확정연금형은 최대 3억 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목돈급여와 퇴직생활급여 적립형은 가입 한도가 3년제 277만 원, 5년제 166만 원까지로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지난 11월 1일 인상된 목돈급여와 퇴직생활급여의 급여율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금리 환경 변화에 따라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대여

"2월 대여조견표 화면이 홈페이지에 신설됩니다"

회원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2월부터는 대여 잔액이 남아있는 대여 건에 대해 상환을 완료한 금액과 상환 예정 금액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대여조견표' 화면이 본회 홈페이지에 신설됩니다.** 대여조견표를 통해 대여 종류, 일자, 금액, 거치 기간, 상환 기간, 만기 일자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경로: 홈페이지 → 인터넷창구 → 약정서 및 증권 재발급 → 대여조견표(2월 이후 확인 가능)
* 대여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해지 계약 건의 경우 대여금상환내역증명서 화면에서 확인 가능
* 대여조견표는 상환이 예정된 추정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 대여상환금 미납 상태이거나 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원리금 상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한 경우 조회 불가

대여

"3월 1일, 분할급여대여 이용이 확대됩니다."

분할급여금을 신청하고 퇴직 시점에 대여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님만 이용할 수 있었던 분할급여대여 제도를, 2022년 3월 1일부터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인 퇴직회원님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현재 분할급여대여는 퇴직 후 단기간 내 퇴직수당 등 여유자금으로 대여 상환이 가능하지만, 퇴직 시점 장기저축급여와 대여 상계로 분할급여금 가입 가능 금액이 감소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 시 보유하고 있던 대여 잔액을 즉시 상환하는 대신 분할급여대여로 전환해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2018년 3월부터 시행해왔습니다.

분할급여금은 저율 과세 혜택으로 인해 부분 해약이 불가하여 분할급여금 보유 회원님이 단기자금이 필요한 경우 전체 해약을 해야 하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분할급여금을 해약하지 않고도 회원님이 단기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보완한 것으로, 앞으로는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인 퇴직회원님도 분할급여대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선되는 분할급여대여의 한도는 잔여 분할 부담원금의 60%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재대여*가 가능합니다. 상환 기간은 연 단위로, 최장 10년(거치 기간 설정 불가)이며, [분할급여금 잔여 지급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재대여**: 대여 기간 중 기존 대여 원리금을 상계하고 신규 대여를 신청하는 방식의 대여

보험

"보험도 이제는 모바일로,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 청약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기존 공제회 보험 가입 시 서면 가입신청서를 사용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속하고 안전한 청약 처리를 위해 회원님의 접근성·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 청약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바일 전자 청약 시스템은 서면 가입신청서 등을 전자 서식화한 후 모바일로 전송해 신속·정확한 청약 처리가 가능한 페이퍼리스 환경으로, 환경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말합니다. 모바일을 통해 유효기간 내 원하시는 시간대에 어디서나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신속한 프로세스와 최적화된 UI/UX를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로의 확장 및 전 상품·전 연령의 모바일 전자 청약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모바일 전자 청약 시스템**: 가입 설계 및 상품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가입신청서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회원의 모바일로 문자를 보내면, 회원이 본인의 모바일에서 확인한 후 전자 서명을 통해 계약이 접수되는 시스템

복지

"더욱 폭넓어진 복지부조금 제도와 새로운 기념품이 찾아옵니다."

회원님의 결혼·출산·퇴직 등 생애주기에 맞춰 기념품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부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은 매년 회원 설문 및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선정합니다. 올해 신규 및 재가입 기념품은 멀티 그릴·스텐팩 밀폐용기·냄비 세트·핸드 블렌더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특별회원 및 결혼 기념품은 냄비 세트·에어프라이어·전기 그릴팬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1월부터는 회원님께 드리는 복지부조금 혜택을 더욱 확대합니다. 공제회와 함께 오랜 인연을 유지해온 회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년유지회원감사 기념품'과 '퇴직기념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제도별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연간 문화 행사 일정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개최되지만, 매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을 회원님을 위해 **1월부터 연간 The-K 행복서비스 문화 행사 일정을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내부 상황에 따라 행사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만큼 신속하고 편리하게 각종 문화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님이라면 본회 홈페이지 내 'The-K 행복서비스'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The-K 매거진」 2022년 1월호 The-K Focus(p.68-69_ 2022년 미리보는 행복서비스 모음집) 기사에서도 연간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떠올리며'
2021년 The-K 브랜드 캠페인 이벤트 우수작을 소개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잇는 마음 한 줄, 세상을 읽다

일상 속 너무나 당연했기에 잊고 있었던 사람·공간·순간의 소중함. 우리 곁에 늘 있는 만큼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지난 10~11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잊고 지낸 소중한 것을 위한 교육 가족 여러분의 감성을 딱 한 줄, 30자 이내로 표현하는 The-K 브랜드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The-K 매거진」의 지면을 빌려 회원 여러분의 다채로운 이야기와 감성이 담긴 아름답고 귀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톡톡 문자 말고, 이젠 똑똑 문 열고 볼 수 있겠지?
- 정예영 님

쿵쿵 심장까지 울리던 음악 소리, 함성 소리가 그리워요
- 전현미 님

평범함, 어긋남 속에서 알게 된 빛나던 일상의 균형
- 이내숙 님

코로나는 1m 거리 두기지만 마음만은 옆에 두기
- 조현미 님

체온을 재지 말고, 체온을 나누고 싶습니다
- 정혜선 님

방호복을 입고 방어벽이 되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 장택영 님

탑승구로 가는 길, 북적북적한 들뜬 설렘이 그립습니다
- 성민경 님

쉼표는 이제 그만! 너의 자리로 돌아와, 마침표
- 이완 님

내 옆이 항상 따뜻했었다는 걸 너의 빈자리로 알게 됐어
- 김진희 님

휴대폰이 아닌 따뜻한 손으로 안부를 묻고 싶어요
- 배지현 님

누구도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았기에, 일상은 빛났다
- 남우숙 님

앞니 빠진 아이들의 함박웃음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 홍명희 님

함께했던 떼창, 응원! 뜨거웠던 것들이 그립다
- 정다이 님

하얀 천 속, 잊혀진 계절 내음
- 설지원 님

언제나 말하던 '다음에', 지금의 소중함을 늦게 깨달음
- 최민선 님

딸아, 너에게 돌려주고 싶다. 반짝이던 일상을
- 남성환 님

웃고 울고 찡그려도 좋아, 온전히 마주 보고 싶을 뿐
- 이민경 님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일상은 매일의 작은 기적이었어
- 안정민 님

너의 짓궂은 표정까지도 이렇게 그리워질 줄은 몰랐어
- 강예진 님

돌아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음껏 웃는 자유로운 여행
- 정희수 님

눈만 보이는 반쪽 소통, 마음도 반쪽만 통하는 것 같아
- 장효정 님

오랜 지인의 경조사에 달려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길
- 류근후 님

내 아이들은 나 혼자가 아닌 세상이 키워주고 있었다
- 임혜진 님

웃는 반달눈도 좋지만 올라가는 입꼬리도 보고 싶어
- 한나영 님

운동 후 뺨에 닿았던 시원한 바람, 네가 그리워
- 김나경 님

※ 본 선정작의 저작재산권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귀속되며, 저작권 및 소유권 등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버티고, 싸우고, 지켜야만 했던 소중한 일상. 모든 교육 가족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현재와 미래, 각각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장편 스토리겠지요.
오늘의 전개와 내일의 클라이맥스 그리고 언젠가의 엔딩 크레딧까지도
당신의 매 순간을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공제회 주요 소식 & 이벤트

회원 정보 연락처를 확인해보세요
장기저축급여 납입현황 모바일 발송 안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2021년 12월 기준)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장기저축급여 납입현황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로 2월 초 발송할 예정이다. 본 안내문에는 회원의 2021년 12월 기준 장기저축급여 납입현황, 현재 가입한 구좌 기준 퇴직가정급여금, 최대 구좌로 증좌 했을 시 퇴직가정급여금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창구에서 휴대전화 번호 등의 회원 정보가 잘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제도는 회원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높은 급여율(이자율)을 적용하여 설계된 장기 저축상품(적금형)이다.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회원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더케이를 찾아주세요!
유튜브 영상보고 단어 찾기 이벤트, 1월 3일 ~ 16일까지 참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The-K 웹 광고 영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1월 3일부터 16일까지 공제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더케이를 찾아라'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의 노래 가사에서 '더케이'가 총 몇 번 들리는지 정답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아메리카노 Tall) 1매를 증정한다. 영상 댓글로 교직원공제회를 응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면 당첨 확률이 더 올라간다. 당첨 발표일은 1월 21일이며,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해당 영상 커뮤니티 글 참조.

유튜브 영상 보러가기

회원님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생활복지서비스 이용회원 만족도 조사 안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회원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생활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1월에 실시한다. 생활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제휴 서비스 선호도 ▲이용 만족도 등 설문조사 문항에 응답하여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총 5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카페라떼 Tall)을 1인 2매씩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읽고 싶던 베스트 셀러를 받고, 힐링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2022년 북&JOY 도서 증정 행사 안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북&JOY 도서 증정 행사를 매월 진행한다. 북&JOY 행사는 회원이 원하는 도서를 직접 선택하여 자택으로 배송받는 비대면 이벤트로,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5,500명에게 도서를 증정할 예정이다. 도서는 ▲국내 대표 서점의 베스트셀러 20종 ▲스테디셀러 10종 ▲테마 도서 10종으로 총 40종의 다양한 장르의 도서 중 원하는 도서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회원에게 희망 도서 1인 1권을 증정하며, 당첨회원에게는 응모 시 입력한 주소로 순차 배송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감사원 주관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최고 'A등급' 달성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1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사원이 기초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67개 기관에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다. 심사기준은 감사 인프라 등 4개 분야 16개 지표이며, 그 결과에 따라 4개 등급으로 구분해 부여한다. 교직원공제회는 전년도 자체감사활동에 대해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도 ▲개선요구사항 및 모범사례 발굴 실적 ▲일상감사 이행 노력도 등 평가지표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667개 기관 중 최고 등급을 받았다.

▲ 김재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왼쪽 세 번째)와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왼쪽 네 번째)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수자원공사와 감사업무 협약 체결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2월 7일 청렴도를 제고하고 감사성과 향상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감사정보 및 기술 등 교류 ▲전문분야 감사인력 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협력 ▲감사정보 상호교환 및 요청자료 제공 협조 등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감사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김재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는 "양 기관이 감사성과 향상 및 감사역량 제고를 위해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통제 취약·우수분야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가 시행되고, 양 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LACP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LACP(미국커뮤니케이션연맹)에서 주관하는 'LACP 2021 스포트라이트 어워드'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대상을 지난 11월 22일 수상했다.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는 세계적인 마케팅 조사기관인 LACP에서 매년 주관하는 글로벌 제작물 경연대회로, 이번 대회에서는 500여개 이상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연차보고서가 출품되어 경쟁을 벌였다.
교직원공제회는 ▲첫인상 ▲내용 ▲디자인 ▲창의성 ▲명확성 ▲적합성 등 총 6개의 평가항목 중 5개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했으며, 모든 평가부문을 망라한 Top 100 순위에서 22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공제회 50년사,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사사 부문 대상 수상

지난 11월 24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사사(社史) 부문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교직원공제회 50년사』는 1971년 3월 창립 이후 50년 역사를 조망하는 정통사로서의 『본책』과 교육가족이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시간·사람·공간의 세 가지 테마로 풀어낸 『별책』으로 구성됐다. 또한 디지털 책자(e-book)로도 제작되어 지면의 한계로 싣지 못한 자료도 모두 수록하였다.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역사를 소중히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개로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 혁신, 전문성'이라는 공제회 핵심가치를 마음에 새겨 새로운 50년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전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50년사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The-K 출자회사 겨울 소식

The-K호텔서울

새해 새 출발과 함께 진정한 휴식을! 신년맞이 객실 초특가 이벤트

The-K호텔서울은 새해의 새로운 다짐과 함께 진정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윈터 패키지**를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우선, 2021년 12월에 이어 공제회 회원을 위한 **객실 초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해당 객실은 ▲디럭스 트윈, 스탠다드 트윈, 한실이며 ▲회원 특별가로 주중(일~목)은 7만 원, 주말(금~토)은 8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아늑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윈터 패키지**는 ▲일반실 1박, 조식 뷔페 2인 이용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 할인가로 ▲주중(일~목) 11만5천원, 주말(금~토) 12만5천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VAT 포함)

이용 금액은 투숙 일자 및 예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조식 뷔페 미운영 시 한조식(반상) 또는 우거지 해장국&커피로 대체될 수 있다. 해당 패키지를 이용하면 레스토랑 우첼로와 더파크, 베이커리 카페 더케이델리에서 식·음료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헬스&사우나 일일 입장 5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심 속 자연 친화적 주변 경관으로 내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며 진정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스테이 힐링 이벤트**도 선보인다. ▲객실은 디럭스 트윈, 회원 특별가로 ▲한 달 휴스테이 투숙 시 5만5천원 ▲2주 휴스테이 투숙 시 6만6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1박 기준). 장기 투숙 회원에게는 레스토랑 우첼로, 더파크, 베이커리 카페 더케이델리의 식·음료류 10% 할인, 헬스 50% 할인, 골프 연습장 일일 입장 3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The-K호텔서울은 주변에 양재시민의숲과 양재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호텔 내부의 넓은 녹지 공간과 연결되어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이 뿜어내는 상쾌한 향기와 함께 진정한 힐링을 즐길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571-8100(The-K호텔서울)

The-K호텔경주

아름다운 자연과 포근한 온천이 기다리는, 겨울사랑 패키지

The-K호텔경주는 2021년 12월에 이어 2022년 2월 28일까지 **겨울 사랑 패키지**를 진행한다. 패키지 구성은 ▲스탠다드 객실 1실, 조식 2인 이용권이며, 이용 금액은 요일에 따라 다르나 ▲최저 10만 원부터 시작된다.(단, 1월 1일, 설 연휴 기간 1월 29일~2월 1일 제외) 온천 사우나는 경주시 지정 최우수 사우나로 지하 630m에서 용출되는 알칼리성 100% 온천 원수이며, 특히 노천탕은 우거진 자연 숲속에 위치해 운치가 매우 뛰어나다. 뜨거운 야외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맡으면 기분 또한 상쾌해진다. 수영장, 헬스장, 온천 사우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The-K호텔경주로 겨울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기타 문의 및 예약은 아래 대표 번호를 통해, 그리고 더욱 자세한 내용은 The-K호텔경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54-745-8100(The-K호텔경주)

The-K지리산가족호텔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수목원 힐링 투어 인증사진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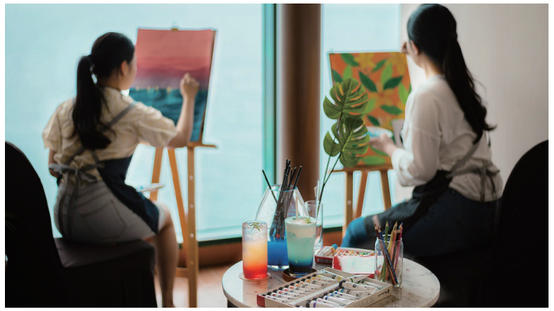
구례수목원은 계절별로 꽃향기에 취해 자연 속 푸른 공기에 흠뻑 빠져들게 되고, 지리산권 식물자원의 보전·수집·전시를 통해 양질의 산림 휴양 서비스를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숲속 체험과 휴양을 결합한 힐링 체험형 수목원이다. 지리산 자락 아래 아름다운 구례수목원에서 청정 숲속 야생화와 이색적인 특화 식물자원을 풍성하게 보고 느끼면서 휴식이 필요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공제회 회원을 위해 1월을 맞아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수목원 힐링 투어 인증사진 이벤트**를 마련했다. ▲구례수목원 입구에서 사진 1장, 수목원 내에 힐링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1장, 총 2장을 입실 시 프런트에 보여준 뒤 ▲The-K지리산가족호텔 공식 이메일 주소(jirisan8100@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참여가 확인된 회원에게는 ▲커피숍 2인 이용권(1회)을 제공한다. 본 이벤트는 1월 한 달간 진행되며 선착순 주중 2팀, 주말 4팀에 해당한다. 인증사진은 체크인과 체크아웃 날짜 기준으로 1실당 1인, 개인 고객만 참여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The-K지리산가족호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1-783-8100(The-K지리산가족호텔)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회원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Team RED 겨울 액티비티 프로그램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는 신년을 맞아 공제회 회원이 제주 여행에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이번 겨울을 위한 **Team RED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추운 겨울, 호텔 밖뿐 아니라 안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텔에 머무는 시간에도 특별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액티비티 프로그램으로는 ▲감귤 체험 ▲미술 컬러링 ▲자개 모빌 만들기 ▲셀프웨딩 체험 ▲칵테일 클래스 등이 준비되어 있다. 감귤 체험은 호텔에서 직접 감귤 농장으로 셔틀버스를 제공해주며 감귤 따기와 감귤청 만들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주도에서 겨울에 꼭 해봐야 하는 체험을 호텔과 함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 또 미술 컬러링, 셀프웨딩 체험 등 다른 액티비티는 호텔 실내에서 즐길 수 있어 비가 오거나 호텔에 있어야 하는 날 체험하기 제격이다. 미술 컬러링 체험은 제주 화가가 특별히 도안을 만들어 스케치한 그림에 물감으로 색을 입히는 활동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색칠이 가능해 개성을 살릴 수 있다. 특히 셀프웨딩 체험은 커플끼리 스냅 촬영이 가능하며, 중년층에게는 리마인드 웨딩 콘셉트로도 가능하다. 촬영 후 택배로 사진첩을 보내주는 만큼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

모든 액티비티는 Team RED 담당자의 자세한 안내를 받으면서 체험할 수 있고, 2월 6일까지 진행한다. 사전 예약제 기반 유료 체험으로 운영되며, 호텔 사정 및 기상 여건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전화 문의가 필수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홈페이지 또는 Team RED 대표 전화(064-729-8560)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예약 문의가 가능하다.

064-729-8100(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귀 기울여 소통하고 함께합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지난 11월호를 읽고 보내주신 회원님들의 의견 중 더 많은 회원님과 공감하며 나누고 싶은 의견을 소개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총 653분의 회원님께서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나태주 시인님의 인터뷰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의 기사들에 대해 고견을 주셨고, 표지와 웹진의 변경된 디자인 등이 인상적이었다는 내용과 새로운 이벤트 안내 문구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낌없이 칭찬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교육 활동에 도움과 영감을 준다는 내용들이 특히 많았고, '평생 소장하고 싶다'는 말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면의 한계로 하나하나 소개하지 못한 회원님들의 의견도 잊지 않고 「The-K 매거진」의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소개된 20명 회원님을 포함해 선정되신 50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박상재 회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The-K 매거진」은 우리 학교 최고의 소통 수단입니다. 많은 선생님이 매거진을 통해 소중한 마음을 나누고 있으며, 이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브랜드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로 인해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위험이 있는 가운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서로 더 조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The-K 매거진」은 정말 중요한 소통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김정희 회원 울산 동부초등학교

이번 호에서는 미래 교사가 해야 할 일과 아이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역량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만 해오던 '미래 교육'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통해 예상치 못하게 더 빨리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 우왕좌왕하거나, 기술적이고 비용적인 문제를 핑계로 넘길 수도 없습니다. 교육자로서 고민만 해오던 그때, 기사를 읽으며 하나의 빛이 보였습니다. 디지털 소양 교육이 꼭 값비싼 장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기사는 정말 전국에 계신 선생님이 읽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값진 기사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연희 회원 웅양중학교

표지 앞면에 'K'를 형상화해 이미지를 넣으니 의미도 좋고, 이번 11월호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으면서도 더 깔끔해 보이네요. 앞표지에 주요 기사 제목도 적어놓아 책장을 넘기기도 전에 호기심이 배가합니다. 먼저 나태주 시인의 인생 이야기는 작지만 큰 울림을 줬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동심과 함께 살아가는 나태주 시인의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제게 잠시나마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운동하는 초등교사 모임 팀 킹덤의 이야기는 요즘 취미를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직장인들에게 신선한 울림을 준 것 같습니다. 나도 도전해보면 할 수 있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남진 회원님의 글은 정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 선생님의 40년 열정과 교육용 프로그램 개발에 헌신의 힘을 쏟은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번 호에도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찬 「The-K 매거진」으로 배우며, 익히며, 힐링하는 한 달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명주 회원 서울대학교병원

저는 주로 앱으로 매거진을 봅니다. 앱 오른쪽에 나오는 메뉴에 덧셈, 뺄셈, 곱셈 등 귀여운 아이콘으로 큰 메뉴를 나타내고 있어 앙증맞으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뉴가 책갈피처럼 언제든 여닫을 수 있어 기사를 읽다가 다른 메뉴로 이동하기 한결 수월해졌네요. 참 마음에 듭니다. 윗부분에 검색 기능도 있어 한 번에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어 주로 관심을 갖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어 유익해 보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교직원공제회 덕분에 제 소중한 자산도 늘고, 유익한 정보도 얻고,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회원 동대구초등학교

웹진으로 바뀌고 나서 크게 달라진 것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기사 주인공의 육성이나 관련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생각' 나태주 시인의 글과 영상을 만나 인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재활용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미술을 교실 수업에서 한 번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는 김황제 선생님의 기사를 읽고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알찬 기사를 꼼꼼히 읽어볼 수 있는 것은 「The-K 매거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서현애 회원 강원대학교병원

15년 남은 직장생활에서 때로는 노후가 걱정되기도 하고, 저축을 잘하고 있는지,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The-K 매거진」을 읽고 그런 걱정과 근심이 싹 달아났습니다. 'NO 금리' 시대에 목돈급여 이율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신뢰와 매력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주변에도 홍보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회원 의창초등학교

멋진 나태주 시인으로 아름답게 물든 11월호였습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라는 시인의 말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슴에 콱 박혀옵니다. '얘들아! 잘 지내니?' 에세이를 읽으면서는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고단함이 함께 느껴졌어요. 특히 최초의 여성 교육감 최정숙 선생의 삶을 읽다 보니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여학교 시절 행복했던 모습에 미소 짓고, 항일운동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올곧은 삶을 충실히 살아오신 모습에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he-K, 아리아리!

이진욱 회원 운동초등학교

가을과 어울리는 콘텐츠 구성에 전체적인 톤이 계절과 잘 맞아 감성적으로 느껴졌습니다. 'DIY 리사이클링'에서 종이가 의외로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 좋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종이 재활용 방법도 소개해줘서 교사에게 특히 유익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매호 느끼는 것이지만, 「The-K 매거진」은 모바일로 볼 때나 PC로 볼 때 모두 로딩 속도가 빨라 좋습니다. 「The-K 매거진」은 내용이 좋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편집과 구성이 정말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희 회원 대구 가창초등학교

이번 호 역시 잘 읽었습니다. 특히 나태주 시인의 이야기가 담긴 '좋은 사람, 좋은 생각' 글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태주 시인의 시에 관한 생각과 느낌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교직 생활에 몸담기도 했던 나태주 시인. 교직 생활 중 널뛰는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시를 썼다는 글에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시를 쓰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빨래한다"는 말씀이나 "늙을 때까지 늙어 봐도 괜찮다"라는 말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The-K 매거진」 이번 호는 평생 소장하고 싶네요. 나태주 시인은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했지요. 저도 학교에서 교직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최연실 회원 대구 성화중학교

매달 초에 메일함에 매거진 뉴스레터가 도착하면 기억해뒀다가 틈틈이 기사를 읽고, 회원 참여 이벤트도 열심히 참여하는 편입니다. 창간 기념 이벤트, 초성 퀴즈 등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많이 만들어주셔서 저도 단순히 구독자가 아닌 매거진 참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읽게 되어 늘 재미있습니다. 이번 호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완기 사진작가님의 콩나물시루 같았던 예전 교실 모습입니다. 한 번씩 선배 선생님으로부터 말로만 듣던 옛날 교실을 직접 사진으로 보니 아이들이 빼곡히 앉아 있는 교실이 참 신기하면서도 정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희귀한 사진을 볼 수 있어서 특히 기억에 남네요. 매달 참여 코너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주이지만 벌써 기사 다 읽었습니다. 이번 호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금덕 회원 도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마음쉼'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좋은 회원복지 서비스는 한 번 알리고 두 번 알리고, 회원 모두가 경험해볼 수 있도록 널리 널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The-K 매거진」을 오래 구독했는데, 이번에야 마음쉼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해보았습니다. 회원 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한 심리 검사도 할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과 MBTI 검사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여태 몰랐는지…. 그래서 11월호에 실린 '한 해가 저무는 시기, 스트레스가 들려주가 내면 이야기'는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김도연 회원 센텀중학교

저는 교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와 마침내 현실을 마주하고, 어느덧 2년 차를 맞이한 신규 교사입니다. 저는 늘 「The-K 매거진」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접하며 제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기도 하고, 제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매거진에서 '온·오프라인 수업에 지쳐가는 나, 돌파구는 없을까?'를 읽고 교사가 된 제가 마음속에 계속 지니고 있던 고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0년 열심히 노력해 드디어 교사가 됐지만, 상상치도 못하게 온라인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낯선 온라인 수업에 부담감과 걱정이 컸고, 첫 제자들에게 미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피하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제 노력을 알아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주고 비대면으로 자주 못 보는 상황에서도 학교에 오면 누구보다 반갑게 제게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런 제게 이번 호는 처음 겪어본 온라인 수업이라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노력하며 달려온 제게 잘해왔다고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The-K 매거진」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교사의 입장에서 교사가 가진 고민을 진심으로 관심 있게 다루고자 한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애정이 가고 매번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매거진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김현아 회원 서울 연천중학교

언제나 애써주시는 The-K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The-K 매거진」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웹진 '이벤트 당첨자 리스트' 코너였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유튜브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 댓글로만 당첨 결과를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니,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이런 세심함으로 가득한 「The-K 매거진」 매호 조금씩 변화하며 전체적인 방향은 더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지요. 언제나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이번 달도 기분 좋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멋진 매거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현호 회원 한경대학교

좋은 콘텐츠와 깔끔한 일러스트 등의 친근한 구성으로 접근성을 강조한 「The-K 매거진」을 저 역시 다른 월간지보다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교직원공제회 회원 간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해 소양적인 부분보다 공제회의 미래 지향적인 내용을 더 많이 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단순 교양지가 아닌 회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항상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예수연 회원 양산 서창중학교

「The-K 매거진」에 나오는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The-K 예술가'를 보면 시, 그림, 서예 등 재능 있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저에겐 전혀 없는 능력이거든요. 본인이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힐링하시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는 공감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 좋아요. '역사 속 숨은 영웅'도 늘 생각만 하고 공부하기 어려운 역사에 대해 소개해줘 조금씩 상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오른 우리말 단어를 보고 뿌듯함도 느꼈고, 자연에서 얻은 종이의 현명한 재활용법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사는 '방방곡곡 숨은 명소'인데요, 이번 호에 소개된 부여도 꼭 가볼 여행지에 추가했답니다. 이번 「The-K 매거진」도 재미나게 잘 읽었습니다.

지정호 회원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The-K Focus'의 '함께 그리고 더 멀리' 회원과 함께 동행하고 이룬 창립 50주년, 자산 50조 원 돌파 기사는 읽을수록 공제회에 감사하고,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 회원의 감동과 감사의 인사를 통해 회원과 함께 성장하는 공제회가 되기를, 그리고 앞으로 창립 100주년, 100조 원을 넘어 나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학교' 교육에 들어온 뇌과학을 통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것과 뇌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최적화한다는 학습 완전체라는 의견은 새로웠습니다.
'똑똑! 트렌드 경제'의 제로 이코노미 관련 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제로 성장, 제로 물가, 낮아진 기준 금리, 저출산율 등을 통해 경제상황을 체감하며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어떻게 이 시대를 함께 극복해나가야 할지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민지 회원 가운고등학교

신규 교원이 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최근 들어 「The-K 매거진」이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씨체도 선명해지고 커져서 보기에도 좋고, 중간중간 사진 역시 너무 멋있어 매번 빠져들어 읽게 됩니다. 매거진 속 이벤트 구성도 너무나 참신하고 기발하다고 생각합니다. 「The-K 매거진」을 보며 저 역시 학생들을 위해 발전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또한 학교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었는데, 「The-K 매거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체험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각종 이벤트 소식도 있어 참여도 하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여러 가지 지식과 사람들 간 따뜻한 정이 가득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제 마음까지 힐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호가 기대되는 「The-K 매거진」을 응원합니다.

이진영 회원 서울화일초등학교

11월호는 무조건 소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가득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순식간에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달렸습니다. 특히 '인생 이모작' 기사에서 프로그래머로 변신한 권남진 회원, 디지털 소양 교육을 통해 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뇌과학과 교육의 콜라보가 멋진 '오늘의 학교', 탄소배출권에 관해 소개한 '미래 잡(job)자' 기사는 전문성 함양 및 개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반가운 기사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 'The-K 예방의학' 기사도 매우 유용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집밥 레시피도 실천해봐야겠습니다. 회원들을 위해 유용하고 반가운 콘텐츠를 준비해주시는 편집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겨울에 든든하고 따뜻한 마음과 소식이 공유되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영 회원 은지유치원

우편함에 꽂힌 「The-K 매거진」을 보니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회원 의견'에 색깔로 형광펜 처리까지 되어 있는 게, 왠지 하나하나 더 신경 써서 읽는구나 싶어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The-K 매거진」은 기사도 좋지만, 회원 의견도 꼼꼼히 읽게 됩니다. 아마도 「The-K 매거진」이 친구처럼 친숙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아 읽고 또 읽으며 힐링합니다. 늘 덕분에 행복합니다.

장소영 회원 삼육대학교

11월호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해주셔서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특히 '일상 속의 The-K'에서 「The-K 매거진」 창간 4주년을 맞아 애독자들이 보낸 "매거진을 통해 힐링받고 있다"는 내용에도 100% 공감했습니다. 회원들의 의견을 읽으며 소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쇄물로 구독한다는 회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아날로그 감성을 느끼고 싶어 신청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The-K 매거진>

설레는 마음으로 매달 1일을 기다려주시는 회원님들,
「The-K 매거진」도 설레는 마음으로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매월 많은 회원분께서 「The-K 매거진」을 읽으신 후 따뜻한 조언과 진심 어린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정성스러운 회원 여러분의 관심은 「The-K 매거진」을 알차고 풍성하게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때로는 지면을 채워주는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를 찾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회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는 「The-K 매거진」을 더욱 가치 있는 매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천이라는 점에 감사의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늘 한결같이 지켜봐 주시는 회원님들의 기대를 알기에 더 큰 노력으로 더 큰 행복감을 드리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

매월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더욱 보답하기 위해 50분을 선정해 모바일 문화상품권(2만 원)을 보내드리고, 매거진에 소개해드립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 회원 의견 신청 바로가기

회원 의견 보내는 방법

1. 「The-K 매거진」 웹진 '회원 의견' 배너를 통해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2.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세요.

1월호 초성 QUIZ

이번 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300명에게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초성퀴즈 바로가기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응모 기간 :** 2022. 1. 1. ~ 1. 31.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2. 3. 1 이후

12월호 퀴즈 정답

Quiz 1. 현봉학
Quiz 2. 스태그플레이션
Quiz 3. 하트투게더

매월 퀴즈 및 회원 의견 선정자는 웹진 (www.theKmagzine.co.kr) 혹은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제강점기에 근화학교를 설립하여 여성의 권리 신장과 교육 확대를 실천하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통일을 위해 힘쓴 한국의 여성 교육가이자, 독립운동가는?
ㅊㅁㄹㅅ 선생 (P.22~25 - 역사 속 숨은 영웅 참고)

2 문화재를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같은 디지털 기술로 보존하고 복원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직업의 이름은?
ㄷㅈㅌㅎㄹㅌㅈ 전문가 (P.36~37 - 미래 잡(job)자 참고)

3 퇴직회원의 은퇴자금을 높은 급여율로 운용해드리기 위한 저축 제도로, 2022년부터 60구좌(3억 원)에서 100구좌(5억 원)로 상한 구좌 수를 확대하는 제도는?
ㅌㅈㅅㅎ 급여 (P.70~71 - The-K Focus 3 참고)

「The-K 매거진」 회원님들을 위한

온라인 선물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 떠 있는 The-K 로고 속 숨은 글자를 조합해 주세요!

◀ 이벤트 바로가기

「The-K 매거진」 웹진에 접속해 기사 속에 숨겨져 있는
4개의 The-K 로고 배너를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4가지 글자를 조합해 만든 하나의 단어를
'숨은 글자 맞추기' 배너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2. 1. 1. ~ 1. 31.
- 응모 방법 : 「The-K 매거진」 웹진(PC·모바일)에 접속해
  숨겨진 로고를 찾아 클릭 ▶ 숨겨진 4글자 찾기 ▶
  단어를 조합해 이벤트 배너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경품 발송 : 2022. 3. 1. 이후

2 'GOGOGO 이벤트'

영상보고 (GO) 댓글달고 (GO) 선물받고 (GO)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달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5천 원)을 드립니다.

- 참가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 응모 기간 : 2022. 1. 1. ~ 1. 15.
- 응모 방법 :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튜브에 접속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The-K 매거진」 1월호 '오늘의 학교'나,
  'DIY 리사이클링' 영상에 댓글을 달아 주시면
  응모가 완료됩니다.
- 당첨자 발표 : 2022. 2. 1. 이후
- 경품 발송 : 2022. 3. 1. 이후

「오늘의 학교」

「DIY 리사이클링」

* GOGOGO 이벤트는 당첨자 정보를 별도로 입력해야 경품이 발송됩니다.
* 각 이벤트의 당첨자 명단은 「The-K 매거진」 웹진 하단의 이벤트 당첨자 배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e-K 매거진」 1월 즉석 당첨 이벤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2022년 새해에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길 기대해봅니다.

The-K와 함께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세요!

응모기간 : 2022년 1월 1일 ~ 1월 31일

500개 이디야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GS25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500개

참가 대상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응모 방법	경품 옆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즉석 당첨 이벤트' 클릭 ▶ 원하는 경품 선택 ▶ 참여 및 당첨 여부 확인 ▶ 당첨 확인 후 인적사항 기입
당첨 발표	응모와 동시에 확인 가능
경품 발송	2022. 3. 1. 이후(회원이 아닌 경우, 당첨되어도 경품 발송을 하지 않음)
유의 사항	• 당첨은 경품별 매월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야 하며,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발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시 입력하는 성명과 연락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정보와 동일해야만 경품이 발송됨 •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참여 시 당첨이 취소되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이벤트 관련 문의 : 하나로애드컴 (Tel. 02-3443-8005)